"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3호 HYUNBULNEWS.COM 2025년 11월 5일(음력 9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그간 지은 죄업 참회하옵니다"

서울 봉은사와 봉은사 생전예수재보존회는 10월 28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번 생전예수재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후 첫 설행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범음범패 스님들이 신중작법을 펼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10면〉 김내영 기자

#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정교분리 논란 확산

**국회 · 서울시의회 지원 움직임**
**가톨릭 행사에 공공성 논란 일어**
**"국가재정 투입, 정교분리 위배"**
**종교 · 시민사회 철회 촉구 나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WYD)를 앞두고 정치권이 잇따라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교황과 함께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는 국제행사로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열린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약 70~100만명 이상이 참가하고 최근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7일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달 19일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33명 의원이 추가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10월 20일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종교계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공공성을 지닌 '국제행사'가 아닌 특정 종교 신앙과 선교를 위한 '종교 행사'에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별법안이 안전 지원을 넘어 시설 신축비 지원, 수익 사업 허용, 후속 사업 등 전방위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조직위원회를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조항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측은 "행사 이후에도 종교단체가 재정적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웃종교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5대 종단 및 시민사회 28개 단체로 구성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위원회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포괄적 지원을 명문화한 것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정교유착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며, 대회를 준비하는 교단 역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지원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은 종교 지원이 아니라 국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행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뿐 종교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직위원회 측도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문화·교육·청년 교류 행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은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적 쟁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특별법이 특정 종교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예산·재산 귀속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면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공공 행사 지원을 원한다면 기존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일반법 체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불교를 비롯한 이웃종교들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대회 개최나 교황 방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종교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안에서 제시하는 청년 국제 교류 등의 명분이 정교유착을 합리화하는 부분이다.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할 만큼 공공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 따께따 사원학교에 '깨끗한 물'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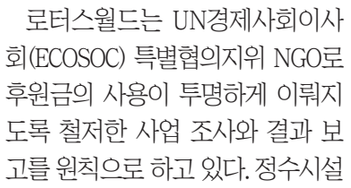
**강금자 씨 두 번째 후원으로 조성**
**10월 설치 시작…11월 말 완공**
**재학생 284명 및 교직원 혜택**

미얀마 양곤 외곽 빈민 지역의 사원학교에 학생들과 스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수시설이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뚜카사리 사원학교 정수시설을 후원했던 강금자 불자가 또 다시 설치비를 후원하면서 진행될 수 있었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뒤섞인 물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던 지역에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지난 10월 23일부터 미얀마 양곤 따께따 타운십에 위치한 담마때이디 사원학교에 다기능 필터가 장착된 정수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의 여섯 번째 성과인 이번 정수시설 설치는 11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정수시설이 완공되면 전교생 284명과 교직원 6명, 스님 1명과 함께 사원 거주 스님 5명 등 300여 명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는 현재 자체 상수도 시설이 있으나 수질이 좋지 않아 우기에는 빗물을 모아 침전시킨 뒤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학생들은 빗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 마시며 수인성 질병에 상시 노출돼 있다. 양곤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따께따 지역은 특히 빈곤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생계를 잇는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일부 가정만이 생수를 구입해 마실 수 있는 형편이다. 대부분 주민들과 학생들은 저수지 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 재학생 중에서는 생수를 구입해 먹는 학생은 만날 수 없다는 게 로터스월드의 설명이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정수시설은 관정, 각종 필터, 펌프, 물탱크, 수도시설, 정수필터 보호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급수시설을 넘어, 깨끗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터스월드는 완공 후에도 정수시설의 유지·보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주민과 교직원들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담마 때이디 사원학교 학생들이 식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빗물 항아리.

이번 사업의 후원자인 강금자 불자는 앞서서도 미얀마 사원학교 정수시설 지원에 동참한 바 있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캠페인 소식을 접한 그는 당시 "아이들이 깨끗한 물 한 모금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학교에서 웃음을 되찾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소감을 전했었다.

로터스월드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 NGO로 후원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한 사업 조사와 결과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수인성 질병 예방과 학생 삶의 질 개선, 학교의 관리 역량 강화를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024년 7월,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사원학교와 빈민 마을에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전국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연으로 미얀마 사원학교 5곳에 정수시설 5기를 완공했다. 02-725-4277

후원계좌: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임은호 기자

사령
명)편집국 취재차장 하 성 미
2025년 11월 1일부
이상 1명



# 조계종 불교광장 신임 회장에 경우 스님

**10월 30일 총회서 만장일치 인준**
**특별회원 신설 등 회칙 개정 보고**
**"소통 · 대화로 종단 화합에 최선"**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광장이 10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경우 스님(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 불교광장 신임 회장에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추대됐다.

화엄 1·2·3회와 무량회, 비구니회로 구성된 불교광장은 10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경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총회에는 총원 59명 중 47명이 참석하고 11명이 위임, 1명이 불참했다.

앞서 불교광장 운영위원회는 올해 9월 9일과 3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회칙에는 △전·현직 교구본사 주지를 대상으로 한 특별회원 신설 △특별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의결권 및 회장 선출 자격 부여 △회장을 회원(정회원·특별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총회 인준으로 확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교구본사주지의 특별회원과 당연직 자문위원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고문단과 자문위원을 통합해 하나의 조문으로 수정했다.

운영위원회는 개정 회칙에 따라 경우 스님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날 총회에서 공식 추인 절차를 마쳤다. 회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경우 스님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소납을 불교광장 회장으로 추대해 줘 어깨가 무겁다"며 "회원 여러분이 지혜와 밝은 안목으로 잘 이끌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보고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불교광장 회원으로서 종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몸짓에 응답해야 한다"며 "더 많은 소통과 대화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종단 화합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은 "기본을 세워 희망의 장정을 열어 가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의 불을 지핀다면 불조의 혜명을 올곧게 잇는 거룩한 불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불교광장이 대기대용의 종단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우 스님은 "종단과 승가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불교광장 회원들의 신심과 공심을 하나로 모은다면 지혜와 행원의 바다가 드넓게 펼쳐지리라 믿는다"며 "모든 종도의 간절한 원력을 모으는 구심점이 돼 세상과 불자들의 마음 마음에 희망의 법향이 널리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염원했다.

전 회장 만당 스님의 입적 후 4개월 여 만에 새 회장을 추대하고 회원 가입 문호를 넓힌 불교광장이 조직 재정비를 통해 발전적인 종책 활동을 펼칠지 주목된다.

# 종책모임 정법회, '선거제도 개혁 특위' 등 제안

**10월 27일, 방향성 · 비전 제시**
**18대 중앙종회 잔여 임기 1년**
**올해 말 '정법구현 3050' 계획**


정법회가 18대 중앙종회의 잔여 임기 1년을 "종단 발전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정법회(회장 탄원 스님)가 종도 참여를 확대하고 종단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혁과 종헌·종법 개편 등을 제안했다.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과 종책위원장 대진 스님, 간사 설도 스님, 회원 혜산 스님은 10월 27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법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법회는 18대 중앙종회의 남은 1년 여의 임기를 "한국불교 혁신과 종단 발전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정법회가 제시한 '한국불교 혁신과 종단 발전 방향'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종헌·종법 구조 개편 △중장기 비전 '정법구현 3050' 수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선거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직·간선제의 장단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현행 선거인단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위원회에는 선거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탄원 스님은 "2026년에 실시될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혁신적 변화를 가늠할 시금석이자 한국불교의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선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법회는 현재 종단에서 추진 중인 징계자 사면 등 제반 행정절차도 충분한 시간과 객관적 사실 검증,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원 스님은 "징계자 사면 등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고 '졸속 절차'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면밀한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법회는 종헌·종법의 전면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앙종회 각 특별위원회의 개별 법안 발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현안을 직접 분석하고 종헌·종법 개편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법회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장기 비전 '정법구현 3050'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종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탄원 스님은 종책모임 간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탄원 스님은 "정기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 오전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종책모임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오늘 정법회의 제안들도 실현될 수 있다. 종회의원 모두가 통합의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건강한 중앙종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0월 27일 신임 집행위원을 위촉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임 집행위원 명법 스님, 지현 스님, 자운 스님, 본부장 성행 스님, 향산 스님, 준한 스님, 사무총장 덕유 스님.

# 조계종 민추본, 신임 집행위원 위촉

**성행 스님, 10월 27일 위촉장 수여**
**'한반도 평화 결의안' 환영 성명**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가 10월 27일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신임 집행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본부장 성행 스님은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향산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청계사 총무국장 명법 스님, 영천 죽림사 주지 선지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재무국장 자운 스님, 부산 붓다선원 주지 지현 스님 등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행 스님은 "그동안 단절됐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민추본이 역할이 크다"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물꼬가 트이면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추본은 그간 활동으로 쌓은 자료를 바탕으로 방향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은 만큼, 신임 집행위원들이 이를 잘 숙지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준비된 자세로 활동하다 보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민추본은 10월 28일, 김영배 국회의원 및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10월 10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대한 환영과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추본은 "오랜 시대적 과제인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이 조속히 합의해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 동국대 감사 후보에 재안·성원 스님 추천

**10월 27일, 조계종 종관위**
**격론 거쳐 투표 끝에 결정**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로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 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각진 스님)는 10월 27일 제133차 회의를 열고 현 감사인 도림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감사) 후보 추천의 건'을 논의했다.〈사진〉

그간 동국대 감사 후보자는 합의에 따라 복수로 추천해 왔지만 이날 후보자로 현 감사 도림 스님과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 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거론돼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비공개 투표가 진행됐고, 재안 스님과 성원 스님이 감사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종관위가 복수 추천한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는 11월 5일 개원하는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동의 절차를 걸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2025년 종립교육기관 운영현황을 자료집으로 제작해 중앙종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승가대와 동국대 등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할 예정이며, 일정 조율은 위원장 각진 스님과 부위원장 탄원 스님, 간사 각연 스님에게 위임했다. 김내영 기자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안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사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장개시일은 예상되는 보험기간 계산을 위한 것이며 실제 보장개시일은 청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보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국번없이 1332 ※보험상품비교공시: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승인번호: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2025-09-23~2026-09-22)



'2025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 참석 대중의 전체 기념촬영 모습.

# 명상 교육 활성화에 지혜 모으다

## '2025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

**조계종 · 국회의원 25명 공동주최**
**10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서**
**여야 의원, '교육+명상'에 공감**
**혜주 스님 등 국내외 석학 발제도**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 제안**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올해 4월 서울 봉은사에서 개막한 '2025 국제선명상대회'의 마지막 행사인 국제컨퍼런스가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깨어나는 교육, 연결되는 우리-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전환의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교육과 명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명상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직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성 스님,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진각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스님들,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영석 포교사단장, 주호영·이학영 국회 부의장,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승래 국회 마음챙김포럼 대표, 김영배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 추미애·나경원 등 여·야 국회의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 시작 전 참석 대중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묵념으로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개회사에서 "명상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명상을 통해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닫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명상이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연구실에서,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이 국회에서 살아 숨 쉬는 지혜의 바탕이 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교육 현장에서 명상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현대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직업인 양성에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데는 소홀했다"며 "선명상은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교육이며 학습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묵념으로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한국 불교 명상이 가진 전통적 가치와 현대 교육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공교육 현장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어린 시절부터 선명상을 배우면 전인적 품성을 갖추고 타인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선명상의 과학적 효과에 주목했다. 이어 "의회도 개회 전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치열한 경쟁과 인간 관계로 아이들과 국민 모두가 상처받고 있다"며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길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좋은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학영·조승래·김영배·송언석·추매애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국내외 석학 4인의 발제도 이어졌다. 킴벌리 A. 쇼너트 라이클 교수(미국 일리노이대 심리학과)가 '새로운 교육으로의 전환: 통합적 교육으로서 사회정서학습의 과학적 배경과 실제'를, 김누리 교수(중앙대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과)가 '경쟁사회를 넘어 공감사회로'를, 로버트 로저 교수(미국 에모리대 명상과학과 자비기반 윤리 연구센터 연구책임자)가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에서 명상의 의미와 역할'을, 혜주 스님(동국대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끝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이 대독한 폐회사를 통해 "지난 7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선명상 축제의 향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찰의 전통이 어우러진 삶 속의 명상 축제였다"며 "그 시간 동안 불자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선명상의 깊은 향기에 동참하며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고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긴 뜻깊은 나날이었다"고 평가했다.

'UN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스님은 "UN은 매년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공식 채택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명상을 통한 세계 평화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범국가적·범국민적 기구가 필요하다"며 "이 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감동을 이어 명상이 인류 보편의 평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기조연설

## "선명상, 검증된 교육 자원"

**'명상과 공교육의 미래' 주제**
**선명상의 교육 효용성 제시**



진우 스님이 '한국 전통 명상과 공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자라 만들어 갈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 질문의 답이 선명상 교육을 통한 인간의 내면과 관계의 성숙에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문명이 급변하는 AI 디지털 시대, 선명상은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교사의 번아웃을 경감하며 공동체의 분열을 치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 전통 명상과 공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조계종이 제시하는 명상 교육의 비전과 공교육 속 명상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불안과 우울, 관계 단절이 심화되고 있고, 교사들마저 번아웃으로 교단을 떠나는 상황"이라며 "오늘 국제컨퍼런스는 학술 교류를 넘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본질과 미래를 새롭게 성찰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성적과 입시 압박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짚으며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인간의 내면과 관계의 성숙은 여전히 시간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명상이 지닌 교육적 효용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현대 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과 사회정서학습(SEL)의 철학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며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힘은 자기관리의 토대가 되며, 타인과의 연결성을 깨닫는 마음은 배려와 협력의 실천으로 이어져 삶의 의미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우 스님은 선명상 교육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보편적 교육자원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교육 현장의 제약,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명상이 심리적 회복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교육의 인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교실에서 아이가 분노를 느낄 때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교사가 수업 전 짧은 명상을 통해 집중을 되찾으며, 갈등이 생기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학교는 다시금 생명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계종은 이미 교사 연수, 학생 맞춤형 교재 개발 등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했다. 향후에도 명상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종교·가치 중립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기조연설 이후 질의응답에서 간결하면서도 유쾌한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명상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스님은 "좌선이든 멍때리기든 독서든 차를 마시는 것이든 방법에 상관없이 요동치는 감정을 멈추고, 내가 평안해지며 모두가 평안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명상의 종교성과 공익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 데 있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니 종교의 영역에서 시비할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김내영 기자



# 이태원 참사 3주기…4대 종교 추모기도회

**10월 25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조계종 사노위 진상 규명 염원**
**기억식서 선우 스님 선언문 낭독**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0월 25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봉행하고 있다.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 단체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추모기도회에서 동참자들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지만, 그날의 참사가 왜 발생했고 구조는 실패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10월 25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와 함께 '4대 종교 추모기도회'를 개최했다.

희생자 159명을 기억하기 위해 오후 1시 59분에 시작된 이날 추모기도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를 주제로 유족 100여 명을 포함, 500여 명이 함께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평안을 염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먼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이어 3년 간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 온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사노위는 하루빨리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는 "이 땅에 참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 지켜야 한다"면서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는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유가족들에게는 "큰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 내는 이들이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지혜와 용기 갖길 바란다"고 위로를 전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하성용 신부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길" 기도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는 "유가족 손을 굳게 잡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이 규명되고 안전이 이 땅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날까지 종교인들은 끝까지 연대로 함께하겠다"면서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생명과 정의의 자리로 바꾸는 희망의 증언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모기도회 후 유족과 참석자들은 이태원 1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6시 34분은 2022년 10월 29일 첫 구조 요청신고가 있었던 시각이다.

한편 조계종은 10월 29일 서울 광화문북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기억식에서 사노위원 선우 스님은 종교계 대표로 단상에 올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 "10·27법난 아픔 치유 위해 진실 규명돼야"

**10월 27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10·27법난 제45주년 추념문화제**


조계종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10 · 27법난 제45주년 추념문화제' 를 봉행했다.

10·27법난 희생자들을 넋을 기리고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추념문화제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10·27법난 제45주년 추념문화제'를 개최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스님과 불교 관계자를 강제 연행해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전국 사찰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조계종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해마다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 추념문화제가 열린 봉은사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이 예정된 곳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을 법주로, 법난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영가를 달래기 위한 위령위식으로 시작됐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롯해 동참자 200여 명은 의식을 통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추념사에서 10·27법난의 고통은 과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역사적 상처이자 교훈임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2008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피해자 인정과 의료지원금 지원, 10·27법난 기념관 건립 등 조계종단의 10·27법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짚고 "종단은 불교 발전의 염원을 모아 10·27법난의 남은 과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 진성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10·27법난은 스님들의 인권을 유린한 한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사건"이라면서 "종단은 국가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10·27법난의 역사적 교훈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10·27법난 기념관' 건립불사의 원만성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불사를 통해 법난의 아픔이 치유되고 굴곡진 우리 불교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 "연차 내고 인연 찾아 직지사로"

**10월 24~25일, 김천 직지사서 '나는 절로'**

**'솔로 탈출' 의지로 6커플 탄생**
**11월 15~16일, 수덕사 40대도**


'나는 절로, 직지사' 참가자들이 차담 데이트를 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함께 연등달고 싶습니다."

10월 24일 오전 7시 20분. 서울 조계사 앞 우정총국 인근에 전국의 청춘남녀가 모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1박 2일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직지사' 참가자들이다. '나는 절로'를 위해 소중한 금요일 연차까지 내고 왔다는 참가자들의 얼굴에 '솔로 탈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직지사가 있는 김천의 특산물인 '포도', '자두'를 활용한 닉네임을 받은 참가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버스에 올랐다. 2번의 휴게소, 2번의 자리바꿈을 하며 총 3명의 이성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직지사에 도착했다.

입재식에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박 2일 동안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청춘남녀를 응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저출산 문제를 공감하고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서로의 매력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뽐내고 랩과 춤, 노래까지. 진심을 담은 간절한 장기자랑에 분위기는 고조됐다.

환복 후 본격적으로 차담 데이트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10분 동안 상대방과 지역, 대학, 취미 등을 공유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깜짝 손님도 등장했다. '나는 절로, 봉선사'에서 인연을 맺은 커플이다.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지사를 찾은 이들은 '나는 절로'의 여러 활동을 통해 내면의 진심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저녁 공양 후에는 대망의 레크레이션 시간이 진행됐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점점 거리감을 좁혀 갔다. 레크레이션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를 지목해 데이트를 했다. 공식적인 데이트 일정은 10시 반까지였지만 커플들은 새벽까지 데이트를 이어 갔다.

다음날 아침, 최종 선택만이 남은 상황. 두근거리는 긴장감 속에 24명 중 무려 6커플이 탄생했다. 50%에 달하는 성사율이다.

참가자들은 회향식 후 인근 사명대사공원에서 열린 김천김밥축제 현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나는 절로'에는 독일인 프리랜서 기자 펠릭스 릴(Felix Lill)씨가 현장 취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 언론을 통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접하고 사찰에서 소개팅을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불교문화는 물론 한국의 결혼 풍토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15~16일 40대 특집으로 진행되는 '나는 절로, 수덕사'에는 1012명이 참가 신청했다.

김천=송정인 수습기자


**조계사 아미타불 점안…20년만 개금 불사**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가 대웅전 삼존불 조성 20년을 맞아 아미타부처님 개금불사를 원만 회향하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누리에 퍼지길 기원했다. 조계사는 10월 26일 대웅전에서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1차 회향—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는 이번 아미타부처님 개금불사를 시작으로 2026년 약사여래부처님, 2027년 석가모니부처님 개금불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 '불교정화' 이끈 서운 대종사 30주기 추모

**11월 8일, 전등사서 문집 봉정**
**'처무규정' 등 첫 공개 세미나**
**역사문화교육관 준공기원법회**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와 이목당 서운문도회는 11월 8일 전등사에서 서운 대종사〈사진〉 30주기 추모 다례와 문집 봉정, 학술세미나, 사진전 등을 개최한다.

이번에 증보판으로 발간되는 〈서운 대종사 문집〉에는 〈처무규정〉의 등사본 원본과 '봉은사 임야 및 토지 매각에 대한 역사적 증언' 원문, '주간한국' 인터뷰 기사 등이 처음으로 수록된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서운 스님이 직접 만들었으나 그간 이두 스님의 글을 통해 제목만 전해지던 〈처무규정〉의 등사본 원본이 공개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11월 8일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정휴 스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서운 대종사의 큰스님론(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서운 대종사의 총무원장 활동·성격(박부영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봉은사 토지의 매각과 이목 서운의 대응(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발제가 진행된다. 서운 스님의 출가에서부터 입적까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차가운 달, 빈 산의 진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등사 대조루에서 열린다.

한편, 11월 8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전등사역사문화교육관 준공기원법회가 봉행된다.

여수령 기자

# 문경명상마을서 '무문관 선칠 수행캠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차례**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수행**

불교 수행의 근본을 되새기며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참된 자유를 체험하는 7일간의 침묵 수행이 문경에서 열린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 스님)는 10월 2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문경세계명상마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무문관(無門關) 선칠(禪七) 수행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문관 선칠 수행은 간화선의 정통 수행법과 부처님 당시의 초기불교 안반선 수행을 접목한 통합 명상이다. 전국선원수좌회 장로의원 의정 스님과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의 지도 아래 수행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묵언과 휴대전화 반납 등의 청규를 지키며 하루 한 끼 공양, 좌선, 수행 점검을 반복하며 깊은 내면의 여정을 이어 간다. 초심자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명상에, 구참자는 화두 참구와 삼매 수행에 집중하게 된다.

캠프는 △11월 1~7일 △12월 6~12일 △2026년 1월 12~17일, 총 3차례에 걸쳐 문경세계명상마을 내 무문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운영은 자발적 후원금으로 충당돼 숙식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가자는 접수비 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참가 인원은 회당 40명.

특히 내년 1월 12일~17일 진행되는 3차 수행은 'MZ 무문관 명상캠프'로, SNS 등 영상에 과다하게 노출된 젊은 세대들이 7일간 집중수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캠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경시가 후원하고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주최하며 한국명상총협회가 주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경세계명상마을 홈페이지(https://wmv.or.kr/1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 국제포교사 33명 신규 품수

**국제포교사회 10월 25일 조계사서**
**'제30회 국제포교사 품수식' 거행**




한국불교 세계화를 이끌고 외국인 포교에 앞장설 33명의 신임 국제포교사가 탄생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서울 조계사 교육관 301호에서 제30기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하고 신규 국제포교사 33명에게 국제포교사증을 수여했다.〈사진〉

신규 포교사들은 4월 12일 조계사 입재식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 제30회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성실히 이수해 통과한 이들이다. 과정은 국제포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영어 법회 진행 및 템플스테이 영어 안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 2회, 2시간씩 총 39강이 진행됐으며 이 중 영어 강의 비중은 70%를 차지했다.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블렌데드러닝(Blended Learling)으로 운영됐고,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박 3일간의 템플스테이 과정도 포함됐다.

임은호 기자

# “태허 조사 혜안 이어받아 AI시대 전법 선도”




관음종은 10월 24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참석 내외빈들의 기념촬영.

관음종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

**10월 24일 종로 탑골공원서 봉행**
**2년여 노상설법 태허 조사 추모**
**홍파 대종사 법어…“미래 선도”**
**법명 스님 ‘다문화 종책’ 강조해**
**새기는회 대표도 감사인사 전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모 산달마 푼다리카 수드라.” 관음종 개산조 태허 흥선 조사의 ‘법화삼매 관법 대비주’가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울려 퍼졌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2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 노상에서 가르침을 전한 태허 조사의 유훈을 되새기며 AI시대를 선도할 종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관음종은 10월 24일 탑골공원에서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겨레와 함께한 60년, 인류와 함께할 60년’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관음종 제9세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법명 스님, 원로원장 법륜 스님, 부원장 도각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자리했으며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보광 대종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 등 주요 종단 지도자와 해외불교 지도자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법회 참석 대중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법회에는 해외불교 지도자 스님들도 참석했다.

또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등 불교언론사 대표들이 함께했다.

종정 홍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개산조 태허 조사의 유훈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미래를 혁신하는 종단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태허 조사께서는 법화 행자들이 모인 관음 종문(宗門)과 중생들에게 바른 길[正道]를 제시하고 친히 모범이 되셨다”고 술회한 홍파 스님은 “AI시대에 변화를 알아차리는 지혜의 눈[慧眼]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혁신적 노력은 AI시대 관음종이 찾아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뒤따르기보다는 반 발짝이라도 앞서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 자세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대회사에서 향후 주요 종책으로 다문화·이주노동자 관련 사업들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법명 스님은 “관음종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고 눈이 되고자 한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서 “이 땅에서 누구라도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자리매김하는 데 관음종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내외빈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번 창종 60주년은 관음종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종단협 회장)은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번 기념법회를 통해 태허 조사의 창종 대의가 새롭게 기려져 우리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 희망을 불어넣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관음종과 함께 조세이탄광수몰사고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발굴 및 송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노우에 요코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회 공동대표도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노우에 대표는 “관음종은 일본 조세이탄광 비극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재를 현지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는 한국 유족회에게 큰 격려가 됐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관음종은 거리설법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무료 공양권도 선물했다.

관음종 60년 약사

## 태허 조사 전한 보살행 한국 넘어 세계로 확대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은 개산조 태허 흥선 조사로부터 시작된다.

태허 조사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인 1956년 서울에서 대승불교법화회, 정각회 등 법화계 수행모임을 조직·규합하고 1957년 3월 ‘일승불교 현정회’를 창립해 회장으로 취임했다. 일승불교 현정회는 〈법화경〉의 보살 실천사상을 종지와 종풍으로 했으며, 관음종의 모태가 됐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진행된 태허 조사의 서울 탑골공원 거리설법은 전법과 창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 사건이 됐다. 태허 조사는 삿갓을 쓰고 다니며 “나모 산달마 푼다리카 수드라” 대비주(大悲呪)로 〈묘법연화경〉을 염송하며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탁발 정신을 되살렸다.

이후 태허 조사는 1965년 12월 대한불교불입종(관음종)을 공식 창종하고 낙산묘각사에서 1세 종정으로 추대됐다. 1979년 음력 6월 24일(7월 17일)에 태허 조사가 열반한 뒤, 같은 해 11월에 2세 종정으로 추대된 백상 경조 선사는 3세 종정까지 역임하면서 종단의 기틀을 닦고 위상을 갖췄다.

1988년 1월 15일에는 개산조의 스승인 경운 조사의 손제자 철운 종현(1906~1989) 선사가 4세 종정에 추대됐다. 종현 선사는 1988년 5월 28일에 (재)대한불교관음종으로 종단 이름을 바꾸면서 도약의 위상을 마련했다. 그해 10월에는 지역의 일부 사찰이 관음종과 분종(分宗)하는 일이 발생하며 종정 체제의 종단 운영을 총무원장 중심의 종무행정 체계로 개편했다. 1979년 10월 대한불교불입종 교정원장에 취임한 홍파 스님은 1988년 10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겸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돼 종단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

1995년 10월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에 피선된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종단의 국내외 교류와 연대를 도모했다. 1996년 3월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이사장에 선출되는 등 종단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였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중일불교문화우호교류회의 수석대표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8년 7월 10일에 국난극복 및 생전예수재 영산참회 대법회 등을 종단 지속화 사업으로 추진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종단은 안정과 정착기를 걷고 있다. 1997년 2월 화재로 그간 종단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총본산 낙산묘각사의 복원불사가 2003년 6월 7일에 낙성 완료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017년 2월부터 일본 조세이탄광 희생자 위령재를 주관하고 있는 관음종은 올해 5월 24일에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제8차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올해 창종 60돌을 맞아 한일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기원하는 관음종은 조세이탄광 유골 발굴과 더불어 원만한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통도사 개산대재, 1380년 법맥 등불 밝히다

**10월 29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서**
**문재인 전 대통령·불자·시민 운집**
**자장 율사 진영 모신 영고재 봉행**
**불·법·승 이운 행렬 도량 물들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개산 1380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삼보이운 및 괘불헌공 모습.

자장율사의 창사정신을 기리는 법석이 시민축제로 이어졌다. 통도사는 개산 1380주년을 맞아 전통의례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영축문화축제를 통해 불법의 향기와 시민의 발걸음이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거듭났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개산 1380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영축문화축제 기간 동안 통도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미디어아트 전시를 비롯해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연이어 열리며 도량은 축제의 장으로 활기를 띠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 불자들의 참여가 늘어나 전통의례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열린 축제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했다.

통도사는 이번 대재를 통해 '불교문화의 생활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도량'을 실천하며, 신앙과 문화가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법요식에 앞서 통도사 창건조 자장율사의 은덕을 기리는 영고재(迎告齋)가 개산조당에서 봉행됐다.

영고재는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개산조당에서 그 공덕을 예경하는 의식으로, 통도사의 법맥과 수행정신을 상징한다. 이날 영고재는 향과 꽃, 차 공양이 올려지는 가운데 자장율사의 창사정신과 불법 전승의 의미를 되새기며 도량 전체를 청정한 기운으로 물들였다.

영고재에 이어 삼보이운(三寶移運) 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총림문에서 대웅전 괘불대까지 이어진 이운 행렬은 불·법·승 삼보의 상징물을 모시고 이동하는 의식으로,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동참해 도량의 기운을 하나로 모았다. 이날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법요식에는 삼보이운을 통해 모셔온 괘불이 장엄히 봉안되어 불보살의 위의(威儀)를 더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의 삼귀의례로 법요식이 시작됐다.

현덕 스님은 봉행사에서 "자장율사께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 대장경을 봉안하고 통도사를 창건하셨다. 메마른 신라의 변방은 성지를 이루었고,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조의 혜명을 밝히며 불지종가의 위상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통도사는 창건 이래 단 하루도 향화를 꺼뜨리지 않았으며, 역대 조사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이 오늘의 통도사를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중생의 공부처이자 정진처로서 불국정토의 불사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도사 개산 1380주년을 맞이하여 불보사찰 통도사의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고 부처님과 자장율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면서 "우리 각자의 작은 나눔과 자비의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도사는 이날 재적승 가운데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스님 48명에게 총 3910만원의 영축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열린 제4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 시상식에서는 박서주(부산예술고)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 부산불교聯, '2025 팔관회'로 천년 법맥 잇다

**10월 25~27일, 범어사서 '2025 팔관회' 봉행**
**호국법회로 의상대사 1400년 기념**
**위령재 · 팔재계로 청정 회향의 길**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범어사에서 '2025 팔관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회장 정오 스님이 관정을 내리는 모습.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는 10월 25~27일 범어사에서 '2025 팔관회'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연등회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 올해는 '팔재계의 실천과 호국정신의 계승'을 주제로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였다.

10월 25일 첫 행사로 범어사 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선재동자 팔관재계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어린이 100여 명이 법석에 앉아 삼귀의례와 함께 팔재계를 외웠다. 법회 후에는 영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마정수기 법회가 열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다음날에는 '2025 팔관회 호국기원법회'가 봉행됐다.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고, 팔관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법석으로 진행됐다. 올해 백희가무는 의상 대사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대사의 업적과 호국정신을 주제로 한 창작공연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정오 스님은 "국가의 안락은 개인의 청정한 계향(戒香)에서 비롯된다"며 "팔관회를 통해 불교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세계 속에 그 가치를 널리 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에는 호국영령위령재가 봉행됐다. 위령재에는 부산보훈청, 해군작전사령부, 53사단,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산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등 군·경·보훈 관계자와 보훈단체 대표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어사 다도회가 육법공양을 올리고,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추모가를 불러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날 부산보훈단체협의회에 자비의 쌀 20kg 108포(2160kg)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오후에는 팔관회의 대미를 장식한 팔관재계수계법회가 봉행됐다. 고려복식을 갖춘 수계자 100여 명이 3화상 7증사의 집전 아래 팔재계를 받으며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겠다"고 서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의 마지막 여운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에 동참한다. 이날 부산지역 사찰들은 오전 11시 정각,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고 범종을 11회 타종해 참전용사와 순국선열의 왕생극락을 발원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미소원, JTS에 해외 지원금 2700만원

**10월 26일, 정토회 두북 수련원서**
**'해외 결핵 의료 · 우물파기' 지원**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은 10월 26일 경남 양산의 정토회 두북 수련원을 방문해 법륜 스님에게 '한국JTS 해외 결핵 환우 의료비 지원 및 우물파기 후원' 성금 2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인도와 필리핀 등 제3세계 국가의 결핵 환우와 식수난 지역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미소원은 매년 불교계 자비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국내외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이 법인으로 창립되기 전 2002년부터 해외 결핵 환우를 돕는 '한 명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2010년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이후부터는 식수난 해소를 위한 우물 파기 사업을 본격화했다.

미소원은 자비나눔 실천 의지가 모여 2011년 법인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저금통, 경조사 기부금, 기도 동참금 등을 모아 매년 한국 JTS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1년에는 4185만원, 2022년에는 1305만원을 전달하는 등 20여 년간 해외 결핵환우 의료비 지원과 식수 시설 확충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불교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법륜 스님은 JTS의 교육사업 확대와 관련해 "과거에는 1년에 두세 개 학교를 짓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한 해 10여 개 이상을 세우고 있다"며 "이런 성장은 모두 꾸준히 후원해 준 분들의 정성과 신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진제 스님 "APEC 성공 회향 기원"

**10월 25일, 부산 해운정사 앞마당**
**경주 APEC 성공 기원 법회 봉행**




조계종 제13·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 대종사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인류 평화를 발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APEC을 '화쟁과 자각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불교의 수행적 지혜로 세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를 담았다.

부산 해운정사(주지 성담 스님)는 10월 25일 해운정사 앞마당에서 '2025 경주 APEC 개최 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경주 APEC이 성공적으로 봉행돼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이 성큼 다가오길 기원한다"며 "진정한 평화는 제도나 협약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반연을 내려놓고 화두를 뚜렷이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참의심이 돈발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임제 선사의 '탁발화'를 인용하며 "시비와 분별을 놓는 수행이 인류 평화의 근본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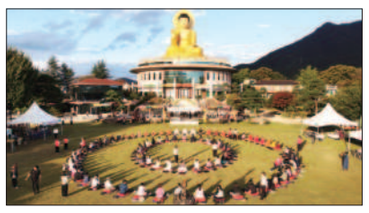
불산 스님은 "APEC이 다루는 경제와 외교의 주제 또한 결국 인간의 행복과 조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참선의 지혜가 그런 세계적 논의의 방향을 밝혀줄 수 있다. 이번 대법회를 계기로 한국 선불교의 정신과 화쟁의 가르침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회 회향 후 해운정사 공양간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렸다. 해운정사 신도들이 직접 음식을 마련해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공양을 올리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 홍법사, 비폭력 식사로 생명존중

**10월 25일, 개산 22년 '선차대회'**
**'비폭력 식사'로 생명 존중 실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10월 25일 경내 잔디마당에서 개산 22주년을 기념한 '사찰음식 홍보행사 및 허공마지 선차대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의 비폭력 정신과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전하고, 발우공양 명상으로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허공마지 찻자리로 문을 열었다. 잔디마당 곳곳에 마련된 가을 찻자리가 시민들을 맞이하며 차향 가득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한편에서는 사찰음식 홍보 전시도 선보였다. 이어 발우공양 명상이 열려 참가자들이 둥글게 앉아 발우를 펴고 공양 의식을 진행했다.

심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공양 명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의 시간"이라며 "한국의 전통 공양법에 명상을 더해 먹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음식을 준비한 대안 스님이 전하는 사찰음식의 의미를 통해 감사와 지족의 마음을 함께 배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는 평안등 점등식과 색소폰 공연으로 마무리돼 차와 음악, 음식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종교 넘어선 평화 선율, '2025 평화음악제'

**10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불교·천주교·기독교 화합 무대**



종교의 경계를 넘어 평화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제가 열렸다.

사단법인 국제종교연합(이사장 정여 스님)은 10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2025 국제평화음악제'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제는 UN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하모니로 평화를, 음악으로 인류애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공연은 '그리운 금강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막을 올렸다. 천주교 무대에서는 '무정한 마음', 'O mio babbino caro', '축배의 노래'가 울려퍼졌고, 기독교 무대에서는 '행복한 산책',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오! 해피데이' 등이 이어지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불교 무대에서는 여여한 중창단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금정총림 범어사', '즐거운 가요 메들리'를 선보였다. 특히 불교 합창단이 성가곡을 불러 종교 간 화합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마지막에는 전 참가자가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인류의 평화를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혜원정사, 어르신 공경과 나눔 실천의 장

**10월 25일, 복지법인 혜원 주관**
**장학금 · 감사패 · 장수상 시상 등**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10월 25일 부산 혜원정사에서 '2025 혜원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세대 간 나눔과 공경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산장학회, 혜원문화재단, 혜원정사 세 기관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고산장학회 장학금은 동국대학교와 부산정보고 등 13명의 학생에게 총 1200만원이 수여됐다. 혜원문화재단은 지역 학생 40명에게 2300만원의 장학금을, 혜원정사는 7명의 학생에게 3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이어 원허 스님이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한 김나윤 안동한우갈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원허 스님은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써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거제3동의 신광휴 어르신과 연산2동의 손정애 어르신이 장수상을, 연산동의 김도자·임순축 부부와 연산8동의 강성재·이임애 부부가 화목상을 수상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동래구불교聯,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10월 24일, 동래임진의총서**
**자관 스님 "평화 · 화합 계기"**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는 10월 24일 부산 금강공원 내 동래임진의총에서 '임진왜란 433주기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자관 스님은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오늘 3500여 영가를 대신해 지극한 정성으로 위령재를 올리는 만큼 우리 모두가 평화와 화합의 마음을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현 스님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동래읍성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충혼열사와 이름 없이 산화한 모든 영혼이 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동래임진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막고 동래성을 사수하다 순절한 선열들의 유해를 모신 곳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마음 광명 찾을 '한마음의 문' 우뚝 서다

**한마음 광명선원 일주문 준공법회**
**10월 25일 봉행…2500 대중 참석**
**2019년 기공식 6년 간 불사 진행**
**대행 스님 가르침 일주문 곳곳 투영**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법어 각자돼**
**"이 자리가 한마음 돌아가는 자리"**

음성=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의 첫 국내지원인 음성 광명선원에 마음의 광명을 찾을 '한마음의 문'이 우뚝 섰다.

한마음 광명선원(주지 청백 스님)은 10월 25일 경내 대웅전 일원에서 '일주문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LA지원장 혜중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등 국내외 지원장 스님들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 박종수 안양본원 명예신도회장, 신현준 안양본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불과 준공 화합재에 이어 준공법회에서는 1993년 10월 17일 광명선원에서 이뤄진 대행 스님의 법문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대행 스님은 법문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렇듯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그 과정이 쉴 사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 말과 말, 뜻과 뜻으로 이어져서 쉴 사이 없이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했다

이어 "자유로운 자기 마음들을 갖고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 차를 타는 데도 매달리고 내리는 데도 매달리기 때문이다. 묵묵히 타고 내리면 되는데 참섭(參涉)하며 온통 걸리고 돌아가니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는가"라며 "내 육체를 여래의 집으로 삼으면 그 한마음의 심봉은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 門에 대행 스님 법문 담다

영상 법문 시청을 마친 스님들과 재가자 대표들은 일주문으로 이동해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4일 기공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주문 건립불사는 6년여 간 이어진 대작불사였으며, 이원상 대목장·전장일 화백·김종민 칠장·이창환 각자장 등 장인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한마음 광명선원의 일주문은 다포양식에 맞배지붕을 얹는 전통 목조 건축물이다. 공간의 흐름에 따라 세워진 네 개의 기둥은 배흘림 주초석 위 배흘림 원주를 세우고 그 위로 아치형 창방을 둘러 구조적 안정감과 유려한 선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았다.



한마음 광명선원은 10월 25일 경내 대웅전 일원에서 '일주문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판 제막식.


대행 선사 영상 법문을 경청하는 대중들.

단청은 가칠기법으로 여백을 살리고 전통문양을 재해석해 '오고 감도 이어짐도 없이 한마음으로 순환하는 진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천장의 우물반자에는 도라지꽃과 더덕꽃, 그 열매와 발자국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꽃 본 듯이 볼 수 있는 이"라는 대행 스님의 법문을 형상화한 것이다.

기와지붕의 막새와 망와에 새겨진 그림은 대행 스님 생전에 점검받은 문양으로 막새에는 선원의 로고가, 망와에는 바깥으로 향하는 세 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다. 망와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 대행 스님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 도량 안쪽 창방에는 대행 스님의 법어 '한마음으로 돌아가네'가 각자돼 있어 일주문에 담긴 정신을 여실하게 담아냈다. 일주문 앞 정원은 '머무름 없이 한 발 내딛는다'는 뜻을 담아 발자국 형태로 조성돼 수행의 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구현해냈다.

### "한마음의 문 통해 자유의 길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일주문 안쪽 창방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라는 대행 선사의 법어가 새겨져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이 환희로운 자리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자리"라며 "대행 선사가 심어준 에너지, 일주문 불사를 하며 모든 이가 공부하며 쏟은 한마음 에너지를 느끼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에서 "일주문은 마음의 문"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법회에 참석한 인연공덕으로 어디에 있던 늘 열려있는 한마음의 문을 잘 드나들며 자유의 길을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회를 준비하며 한마음이란 크고 넓고 한량없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한마음으로 이 도량이 세세생생 한마음 도리를 공부할 수 있는 도량으로 이어가겠다"고 대중들에게 다짐했다.

한편, 이날 준공법회에서 혜수 스님과 혜솔 스님은 이원상 대목장·전장일 화백·김동철 명장·김종민 각자장·장명학 미래건축 대표·장병육 대영측량 대표·조남진 도영토건 대표·권영향 신우전기 대표·이정훈 현장 소장에게 님의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법어 서각을 전달하고 감사함을 전했다.

## 사천 다솔사, 효당 스님 부도탑 경내 이운

### 10월 25일 이운식…50년 만에 경내로

사천 다솔사(주지 무관 스님)가 효당 최범술 스님의 부도탑을 50년 만에 경내지로 이운했다.

다솔사는 10월 28일 안심료와 부도탑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도탑 이운 알렸다. 효당 스님은 다솔사에서 출가하고 주지를 역임했으나 정화운동 시기 '대처승' 논란으로 부도탑은 사찰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앞서 다솔사는 10월 25일 스님의 유족과 반야로차도문화원 문도회가 참석한 가운데 부도탑 이운식을 진행했다.

주지 무관 스님은 "효당 스님은 불교계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이번 부도탑 이운은 불교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스님의 법맥이 다솔사와 더불어 후대에 올바르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야로차도문화원 문도들은 "반세기 만에 스님의 부도가 다솔사 도량으로 돌아온 것은 스님의 뜻이 다시 숨 쉬는 일"이라며 감격의 마음을 전했다.

효당 최범술 스님(曉堂 崔凡述, 1890~1973)은 1916년 사천 다솔사에서 출가해 해인사 주지, 제헌국회의원, 해인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3·1운동 당시에는 독립선언서를 등사·배포하다 투옥되는 등 민족운동에 헌신했다. 정화운동 시기 대처승 논란 속에서도 불교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다솔사에 차나무를 심어 차를 직접 만들고 〈한국의 차도(茶道)〉를 저술하는 등 한국 차문화를 대중화시키는 데도 앞장섰다.


사천 다솔사는 10월 25일 효당 최범술 스님의 부도탑 이운식을 봉행했다.

불교와 차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수행·교화·사회참여를 아우른 공로를 인정받아 1969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밀양 표충사, 제564회 사명대사 추계향사

### 10월 25일, 경내 사당서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10월 25일 사당에서 '제564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향사는 불교와 유교가 함께 올리는 제향으로, 서산·사명·기허 대사의 구국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진각 스님은 "사명 대사는 스님들의 정신적 뿌리이며, 그 뜻은 호국불교의 근본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 10월 27일, 진안 문화의집서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 마이산 탑사 회주)는 10월 27일 진안 문화의집에서 제12회 봉사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28명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부안 내소사,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 10월 26일, 경내 특설무대서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는 10월 2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2025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음악회는 지휘자 강한준 예술감독의 창작 국악관현악 '천년고찰 내소사', 아카펠라 국악관현악 '채석강 가는 길' 등을 선보였고 참가자들이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며 마무리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태고종 충북교구, 백운 화상 다례재

### 10월 25일, 흥덕사지 일원서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성 스님)가 10월 25일 청주 흥덕사지 금당 일원에서 제12회 백운 화상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스님의 구도 정신이 오늘날 불교의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처인승첩 이끈 '僧將 김윤후' 기리다

### 용인불교문화보존회, 10월 25일 처인성서 추모다례

대몽항쟁 당시 용인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이를 활로 쏴 쓰러뜨려 전투를 승리로 이끈 처인승첩(處仁勝捷)의 주인공 '승장(僧將) 김윤후 스님'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와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 10월 25일 용인 처인성에서 '제24회 김윤후 승장 추모다례재와 김윤후 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전통과 현대, 사람과 문화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 정호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 30여 명과 류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상식 국회의원, 남홍숙 용인시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등이 함께 했다.

자광 대종사는 추모 법문을 통해 "처인성과 김윤후 스님은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라며 "백년을 이어갈 정신적 자산인데, 우리가 그간 너무 소홀했다. 이제는 용인시와 경기도,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선양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후 스님은 고려 시대 부곡 백성과 함께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싸워 처인성을 지켜낸 호국승장이다. 스님의 신분으로 백성들을 직접 지휘하며,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화살로 쏘아 쓰러뜨렸다. 이 승전은 세계사에서도 '몽골군이 처음으로 패한 전투'로 기록돼 있다.

정호 스님은 "불교의 호국정신을 오늘의 시민정신으로 잇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 광주 만경사, 정광중에 핫도그 자비나눔

### 10월 24일 학내 급식실서 600명에 전달

광주 만경사(주지 시공 스님)는 10월 24일 광주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불교종립 정광중학교(교장 정경금) 급식실에서 '시공 스님의 오늘은 핫도그 DAY' 자비나눔 행사를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기 위한 자리로, 시공 스님이 2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학교 방문 자비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시공 스님은 지역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 핫도그, 팥빙수 등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행복과 응원을 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 유일의 불교종립학원인 정광학원 부설 정광중학교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시공 스님을 비롯해 정경금 교장, 이동배 정광학원 교법사,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 만경사 신도 및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총 600개의 핫도그를 전달했다.




시공 스님은 "초등학교 때는 30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중학생 대상이라 두 배인 600개를 만들다 보니 준비가 쉽진 않았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수고가 다 사라진다. 함께 마음을 보태주신 신도들과 자비신행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박남주 신도는 "2년째 스님과 함께 봉사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국립중앙博, 문화유산 보존과학 새 장 열다

**10월 28일 보존과학센터 개관**
**9196㎡ 규모, 첨단 시설 갖춰**
**3D 형상분석·비파괴 조사 등**
**보존과학 50년 담은 기념전**
**'종합 보존과학 허브' 기대 모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전경.

한국 문화유산 보존과학의 새 장을 열 연구·보존 기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10월 28일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했다.

이번 보존과학센터 개관은 1976년 보존기술실로 시작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 연구가 반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성과다.

총 연면적 9196㎡ 규모의 보존과학센터에는 최첨단 보존과학 시설들이 들어섰다. 센터에는 △유물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원격진단실 △유물의 형태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3D 형상분석실 △재질별 맞춤형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보존처리실 CT(컴퓨터 단층 촬영) 등 비파괴 조사 장비를 갖춘 비파괴 조사실 △전자현미경 등 분석 장비를 활용한 분석실 △박물관 환경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환경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보존과학 인력의 전문 교육을 위한 교육실과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가 가능한 세미나실까지 설치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센터는 연구와 교육,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보존과학 허브로 나아갈 예정이며 인문학적 연구와 과학 기술을 결합한 문화유산 보존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센터 개관을 기념해 특별전 '보존과학,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를 센터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보존과학의 50년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보존과학의 방향을 담아냈다.

개관 기념 특별전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의 역사'에서는 1976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보존처리 장면들과 기록자료를 통해 박물관 보존과학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부 '빛으로 보는 보존과학의 세계'에서는 보존과학의 핵심 도구인 '빛'을 활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물 속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선보인다.

3부 '보존과학이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을 이야기한다.

유홍준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개관은 우리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지키고 연구해 온 50년의 성과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융합된 문화유산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물 연구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연구 환경 조성, 보존과학 전문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AI 기반 손상도 측정 및 보존처리,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모니터링 및 대응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과 연계한 원격 지원·원형복원 기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 불안과 괴로움은 어디에 있지 않다

⑯ 오온개공 도일체고액

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인간에게 깃들거나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다. 불안과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와 청정, 평안과 기쁨의 열반이 드러난다. 석가모니 붓다의 모든 가르침과 수행법은 이 열반을 지향한다. 이후 대승불교와 선종불교 또한 관점과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열반에 이르고자 한다.

초기불교는 인간 안의 감정·심상·행위·인식 등을 분석적으로 통찰해 그것들이 영속적이거나 실체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탐욕·분노·어리석음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갔다. 그렇다면 대승불교는 번뇌와 괴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멸시켰을까?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한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아라(照見五蘊皆空). 그러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度一切苦厄)."

오온이란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 즉 몸[色]·감정[受]·심상[想]·의도[行]·인식[識]을 뜻한다. 이를 통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만들어 낸 감정·행위·기억들임을 알 수 있다. 경전은 이러한 괴로움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공'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해 보자. 〈반야심경〉은 설한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여기서 '모든 법'은 이름과 형상, 작용을 가진 모든 존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안한 사람도, 맑고 평화로운 사람도 모두 '법'이다. 철학자 칼 포퍼의 독법을 빌려 이 구절을 주어가 아닌 서술부에서 읽어 보자.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모든 법", 이것이 곧 '공'이다.

이 의미를 자신에게 비추어 보자. 지금 분노와 증오로 괴로워하는 '나(모든 법)'는 어디선가 '있었던' 분노와 증오에서 옮겨 온 존재가 아니다. 발생이 없으니 소멸도 없다. 나는 본래 분노와 증오로 오염된 존재가 아니며 그것들이 끝없이 확장될 운명에 놓여 있지도 않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실이다. 그래서 선종불교에서는 번뇌가 본디 없음을 뜻하는 '본무생사(本無生死)'를 말한다.

결국 모든 것은 만들면 있고 만들지 않으면 없다. 발생과 소멸, 있음과 없음이 본래부터 내 안에 자리한 것이 아님을 깊이 사유해 보라. 그렇다면 자유롭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 네팔 비구니 승원 5년 만에 재개원

**코로나 폐쇄 둑빠 아미타바**
**졸업 후 고향서 여성 교육 봉사**


재개원 기념식에서 쿵후 수련을 시연하는 비구니 스님들. 사진 출처=인디펜던트 뉴스

네팔 카트만두 근교 언덕에 소재한 둑빠 아미타바 비구니 승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지 5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디펜더트 뉴스' 등 해외 언론은 둑빠 아미타바 비구니 승원의 새로운 시작을 특별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개원 기념식에서 스님들은 몸과 정신의 건강을 모두 챙긴다는 의미에서 쿵후 수련을 대중 앞에서 시연했다.

2009년 네팔에 개산한 둑빠 아미타바 비구니 승원은 티베트 불교의 둑빠 까규파에 소속된 승원이다. 일반적으로 티베트의 비구니 스님들은 교학 연찬과 수행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둑빠 까규파 종정인 걜왕 둑빠 린뽀체는 "여성 수행자의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높이기 위해 육체적인 운동도 필요하다"며 여성 출가수행자들이 쿵후를 배우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미타바 승원에는 6세부터 54세까지 3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며 쿵후를 수련하고 있다.

아미타바 승원의 비구니 스님들은 모두 '무외(無畏)'라는 뜻의 티베트어 '직메'를 법명으로 받는다. 스님들은 대부분 부탄·인도·네팔 출신으로 쿵후 수련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강원 교육과 수행체계를 익힌다. 강원 졸업 후에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여성 교육의 일선에 나선다.

승원 측은 이러한 교육체계에 대해 "진정한 정신적인 원류인 진리로 회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미타바 승원은 실제 도보나 자전거로 히말라야 지역을 일주하며 재해 구호를 위한 자금을 모으거나, 환경 보호 활동 등 실천 불교의 모습을 보여 주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 INEB, 국제 불교 청년 프로그램 개최

**대만 불교 홍시대학과 협력**
**11월 3일까지 '사회 변혁' 논의**

전 세계 33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불교 NGO인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가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제 청년보살 프로그램 2025'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2일 국제 불교미디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의 보도에 따르면, INEB는 사회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세계평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다. 현재 33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 중이며 한국 측 회원으로는 정토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 청년보살 프로그램은 INEB가 젊은 불교지도자와 사회 활동가들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2주간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대만 불교 홍시대학(Buddhist HongShi College)과 협력해 '영적 부흥과 사회 변혁을 위하여'란 주제로 진행됐다.

22일 개회식에서 INEB 설립자인 술락 시바락사 박사는 21세기에서의 보살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개회사를 통해 공유했다. 불교 홍시대학 설립자인 스차오휘 스님 역시 개회식에 참석해 청년 불자들이 영적인 성장 속에서 사회변혁에서의 자비, 정의, 비폭력 실천을 당부했다.

청년보살 프로그램은 지적, 영적, 신체적 수행을 포함하는 세 가지 주제의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INEB는 "청년들이 불교수행과 현실 세계에 대한 참여를 결합해 내면으로는 깨달음을, 외부적으로는 사회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리 준비하는 26년 성지순례+관광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리-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쉬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화엄의 세계가 담긴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지상낙원 발리 4박6일

구법의 여정을 따라서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꽃피는 봄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4박5일
다카마츠/시코쿠 4박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 “훈민정음 창제, 불교 범어 체계와 맞닿아”

## 통도사,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 영향’ 학술대회

**10월 26일 경내 해장보각서 개최**
**성파 스님 “학문적인 협력을” 당부**
**이태승 교수 “범어 음성체계 영향”**
**이용 교수, 석독 전통 한글에 반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불교의 범어(梵語) 음성체계와 자비의 정신이 결합된 인류문화사의 결실임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26일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계의 영향 – 불교의 동진과 동아시아 문자발달’을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가 지닌 언어적·사상적 역할을 탐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에 끼친 범어음성체계 연구 – 조선 시대 〈진언집〉의 범어 체계와 비교하여’라는 주제 발표에서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의 독창적 성과만이 아니라 불교계의 협력과 범어(산스크리트어) 음운 지식의 전승을 전제로 한 창제였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는 제자 원리와 발성 원리는 범어의 음성체계와 매우 유사하다”며 “세종대왕은 창제 과정에서 불교 승려들의 조언을 받으며 범어의 문법적 구조와 발성 원리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글의 자음 분류법인 ‘아설순치후’의 체계는 범어의 자음 분류인 ‘아치설후순’의 순서를 변형한 것으로, 한글의 자모 구조가 범어의 문법 원리와 거의 동일한 발성 체계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음과 자음의 결합 원리, 음절 단위 구성 방식, 종성 구조 역시 범어의 언어 규칙과 일치하며, 이는 세종이 범어의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범어 지식이 신미 대사(信眉大師, 1403~1480) 등 불교계 고승들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은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미 대사와 교류했으며, 이는 한글 창제에 불교계가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을 시사한다”며 “세종이 신미 대사에게 ‘혜각존자(慧覺尊者)’라는 법호를 내린 것은 그 신뢰와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10월 26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계의 영향–불교의 동진과 동아시아 문자발달’ 주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태승 전 위덕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아울러 그는 “한글의 기원을 범자의 글자 형태에서 찾으려는 기존의 ‘범자기원설’과 달리, 범어의 문법적·음운적 원리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실질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범어의 문법 전통은 8세기 이래 불교계를 통해 동아시아에 전승돼 왔고, 조선 시대 〈진언집(眞言集)〉에서도 그 전통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불교 전파와 한국 불경 석독 전통의 만남: 훈민정음 창제의 맥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의 큰 목적 중 하나는 불경을 바르게 독송하고, 백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려와 조선 초기까지 이어진 불경 석독(釋讀)의 전통은 범어의 음절 구조와 독음법을 보존한 불교적 언어 실천이었으며, 이러한 불교의 음성문화가 훈민정음 창제의 언어학적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경전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교의 소리 해석법과 발음 구조를 체계화해 한글의 음운 원리에 반영했다”며 “훈민정음은 불교의 ‘소리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수행적 전통이 문자로 구현된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넘어, 불교의 자비 사상과 언어 해석학이 결합된 동아시아 지성사의 결정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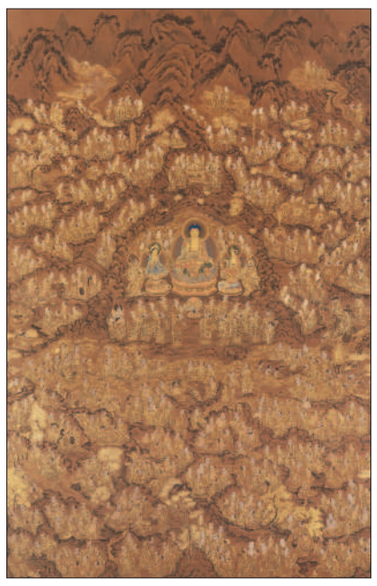
학술대회 종합토론에서는 신웅철 국립한밭대 교수와 조운성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해 불교학·언어학·음운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훈민정음의 불교적 기원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불교가 한글 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학술 토론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이번 연구가 그중에서도 가장 근접한 성과라 생각한다”며 “학계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개회사에서 “종정예하께서 전통문화와 예술, 그리고 한글의 역사적 배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셨기에 이번 학술대회가 더욱 뜻깊다”며 “통도사는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불교와 문자 문화의 관계를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불교문화가 우리말과 문자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천태예술대전 대상에 예상희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

**‘마이트레야의 울림’ 최우수상**
**사진공모 금상 조무권 씨 수상**
**12월 3~8일 전시회 및 시상식**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 수상작 예상희 씨의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예상희 씨의 불화 작품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가 선정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 공예, 민화 분야에 총 140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10월 18일 심사를 진행해 대상과 최우수상 등 모두 7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이연욱(전통불화)·권지은(현대불화)·한봉석(조각공예)·정병밀(조각공예)·남정예(민화)·정희정(민화) 등 해당 분야 작가들이 엄정하게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에 예상희 씨의 불화 작품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가, 최우수상에 박인식 씨의 공예작품 ‘마이트레야의 울림’이 선정됐다.

각 부문별 우수상에는 전통불화 부문에 유현정 씨의 ‘지장시왕도’, 현대불화 부문에 김민주 씨의 ‘연못위의 물음’, 조각 공예 부문에 조용준 씨의 ‘안과 밖, 보살의 마음처럼’이 민화 부문에 김경은 씨의 ‘십장생병풍도’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대상 작품으로 예상희 씨의 불화작품 ‘금니석가삼존오백나한도’를 선정하면서 “탄탄한 기본기와 치열한 작가정신을 바탕으로 고려불화의 전통을 구현하는 데 엄청난 공력을 들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박인식 씨의 공예작품 ‘마이트레야의 울림’에 대해서도 “실용을 근간으로 하는 탁자에 상감기법으로 깊이 있는 불교의 정신을 표현해 냈으며, 미륵신앙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 금상에 조무권 씨의 ‘울림’이 선정됐다. 은상에는 박재용 씨의 ‘삼운사의 봄’이, 동상에는 이명식 씨의 ‘대흥사 은하수’ 등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에는 총 347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유우상·이병윤·김행조·장창근·유병용 등 사진예술계 중진 원로작가들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3점을 비롯해 가작 10점, 입선 55점이 선정됐다.

금상 수상작인 조무권 씨의 ‘울림’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불교의식의 숭고미를 포착한 작품이며 모든 중생이 이고득락에 들길 바라는 스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잘 표현된 점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또 은상에 선정된 박재용 씨의 ‘삼운사의 봄’은 “불교의 이상인 조화와 원융의 표현이 적절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10회 천태예술공모전과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의 수상작품들은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되며 전시 기간 중 시상식도 열린다.

신중일 기자

# 양주 석굴암, 미술관 개관…“문화도량으로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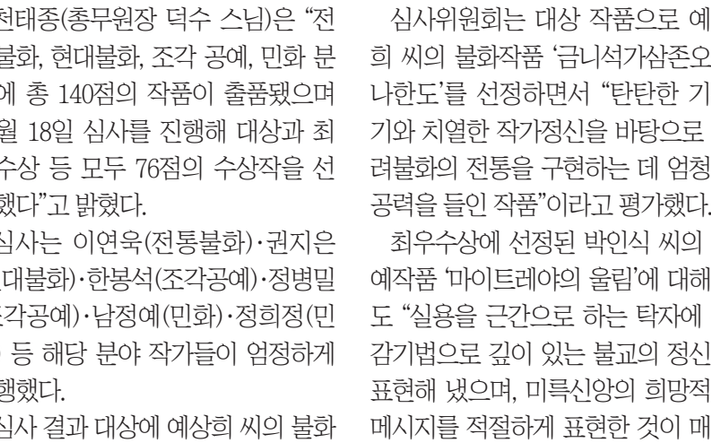
**11월 15일 ‘오봉미술관’ 개관식**
**개관기념 韓中작가 교류 초대전**
**도일 스님 · 왕옥륭 · 김창배 참여**
**‘용 휘호+자개’ 콜라보 대작 눈길**

양주 석굴암(주지 도일 스님)이 미술관을 개관하고 문화도량으로 거듭난다.

양주 석굴암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오봉미술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개관을 기념해 ‘한·중 저명작가 미술교류 초대전’도 연다.

양주 석굴암 오봉미술관 개관에는 주지 도일 스님의 “문화도량으로 거듭나가겠다”는 원력을 바탕으로 한다.

도일 스님은 10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도가 줄고 기존 신도들도 사찰을 찾지 않아 불심마저 약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문화’밖에 없다”면서 “미술관을 개관하는 이유도 양주 석굴암을 문화도량으로 변화·발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일 스님의 작품 ‘비룡’

이를 위해 스님은 경내 지장전을 리모델링해 미술관과 카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일 스님은 “최종적으로는 ‘차문화 도량’으로 가꾸는 것이 목표”라면서 “향후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관 기념 작가 초대전에는 도일 스님을 비롯해 선묵화·차묵화의 대가인 단원 김창배 화백, 중국 둔황석굴벽화 전문가 왕옥륭 작가가 참여한다.

여초 선생 등에게 서예를 사사한 도일 스님은 백제미술대전 사진 부문 특선, 서예 입선 등을 수상했으며 일본교토 국제교류회관 초대전, 우림화랑 미술관 초대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8용(龍) 선서화로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일 스님의 108용 선서화에 자개 명인 김맹길 작가가 자개를 새긴 작품 등 30여 점이 선보인다.

김창배 화백은 다성(茶聖) 초의 선사(1786~1866)의 동다송·다신전과 범해 각안 스님, 금명 보정 선사, 원감 국사 등 선사들의 어록을 수묵으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전시한다. 중국의 왕옥륭 작가는 둔황 막고굴의 관음벽화, 보살상 등을 재현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도일 스님은 “이번 국제 교류전이 오봉미술관에서 펼쳐질 다양한 활동들이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 태고문화축제, 원융 법음으로 하나되다

**제14회 태고문화축제 성료**
**10월 26일 일산문화광장서**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6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제14회 태고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원융과 회통의 소리,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태고문화축제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호명 스님, 호법원장 구산 스님 등 종단 주요 기관장 스님들, 이도형 고양특례시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니라 한국불교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하나로 아우르는 원융의 축제”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술과 음악, 그리고 문화로 피어나는 이 무대는 우리 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사암연합회장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은 “한국불교문화가 세계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육부대중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불교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도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이어받은 이번 태고문화축제가 종교와 세대를 넘어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는 총 4부로 진행됐다. 제1부 식전행사에서는 태고종 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과 엄재원 신인가수의 공연이 있었으며 제2부는 법요식으로 치러졌다. 제3부는 영산재와 예수재를 시민들과 함께 시연했고 이어 제4부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상진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자비의 쌀 2000kg을 고양시장에게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 AI시대, 불교상담이 묻는 ‘마음의 방향’

**韓불교상담학회 추계대회**
**11월 15일 동국대WISE캠**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501호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상담: AI시대의 선명상과 교류분석’을 주제로 제2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AI와 명상의 접점, 불교상담의 실천적 확장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 마음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은 ‘AI와 명상’을 주제로 발표하며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이 ‘조계종 선명상의 대중화와 실천’을, 허만세 계명대 교수가 ‘교류분석(TA) 성격적응이론을 통한 불교의 삼독 해석’을 각각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금강명상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불교상담학회가 주관한다. 불교심리와 상담, 명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10-3465-710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불교의례, 생명과 역사를 어루만지다

가을이면 전국 사찰마다 다양한 법석이 펼쳐진다. 물과 육지를 떠도는 시방세계 일체중생을 도량에 모셔 불법(佛法)을 설하고 공양을 베푸는 수륙재(水陸齋)와 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는 법회인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는 음악 · 무용 · 미술 · 공예가 어우러진 한국 불교의 전통 종합예술이자 참회와 수행의 장이다. 불교의례와 정신을 계승하는 법회 현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진관사 국행수륙재로 '광복 80년' 순국선열 추모

**10월 25일, 수륙재 기념식 개최**
**광복 80년 맞아 순국선열 추모**
**"수륙재로 국가 안녕–국민 평안"**
**종정 성파 스님 법문 회향 법문**



스님과 신도 대중들이 진관사 일주문 밖 시련소에서 인연 있는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 의식을 하고 있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국행수륙재로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진관사와 진관사수륙재보존회는 10월 25일 '진관사 수륙재 개건 627주년 기념, 2025 진관사 수륙재'와 기념식을 봉행했다.

올해 수륙재는 '광복 80년, 온 세상을 비추는 감사의 기도'를 주제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관사는 지난 9월 7일 수륙재에 입재해 국가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49일간의 일정을 이어 왔다.

기념식에 앞서 독립유공자 1만8564명과 미발굴 독립유공자, 집현전 학사 6명의 위패를 모시는 의식이 진행됐다. 특히 백초월 스님의 증손 백외식 씨가 스님의 위패를 직접 봉안해 눈길을 끌었다.

수륙재가 담고 있는 '법식(法食)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진관사와 백초월스님선양회는 '칠칠곡의 쌀' 2000kg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기금 3000만원을 광복회에 전달했다.

법해 스님은 "진관사 수륙재는 화합과 상생으로 원수와 친한 이가 평등하게 은혜를 베풀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지혜를 증득하는 거룩한 만남의 장"이라며 "이번 수륙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숭고한 선열들의 공덕을 기리는 자리이자 내일을 여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진관사 수륙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수륙재가 한국불교의 의례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비와 평등, 화합과 상생을 구현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627년 세월을 이어 온 서울 유일의 왕실 수륙재"라고 의미를 짚었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올해 진관사 수륙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순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 번영과 국민 평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축사했다.

기념식에 이어 낮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어산종장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재주(齋主)·법인(法印)을, 주지 법해 스님이 병법(秉法)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일주문 밖에 마련된 시련소에서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侍輦) 의식을 봉행했다. 이어 영가를 도량으로 모시는 대령(對靈)과 관욕,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 법문의 순서로 수륙재가 설행됐다.

이날 법문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석에 올라 '당하(當下): 바로 지금 여기'를 주제로 가르침을 전했다. 성파 스님은 "진관사 수륙대재는 무주 유주의 고혼을 다 초청해 부처님의 법문으로 이고득락하게 하는 자리로, 세계 인류를 대표하는 특별한 무형문화유산이자 오늘날 우리 민족의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호국불교"라고 설했다.

10월 26일 밤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을 증명하는 수륙연기와 사자를 청해 공양 올리는 사자단, 다섯 방위를 관장하는 황제들을 청해 공양 올리는 오로단, 상단·중단·하단소청, 상단·중단권동, 하단시식, 봉송회향의 순서로 설행됐다.

여수령 기자
기사 전문보기▶

### 진관사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627년 전통의 왕실 수륙재다. 조선 태조가 1397년 진관사에 수륙사(水陸社)를 건립하고 왕실의 안녕과 백성의 안락을 기원하며 수륙재를 봉행한 것을 계승하고 있다. 한국전쟁 등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1977년 자운 스님과 진관 스님의 원력으로 다시 봉행되기 시작해 2013년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됐다.

조선 시대 전통적인 수륙재인 칠칠재(七七齋) 형식으로, 낮에 지내는 '낮재'와 밤에 지내는 '밤재'의 이부(二部) 구성을 전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낮재에서는 수륙재 설판재자와 동참재자 등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에서 환희로운 깨우침의 법문을 들려주는 법석이다. 밤재는 온 세계와 세상의 존재들을 위해 법의 공양을 베푸는 연회다.

# 봉은사, 국가유산 지정 후 첫 '생전예수재' 설행

**10월 28~29일 회향식 봉행**
**9월 11일 입재 후 49일 정진**
**원명 스님 "육바라밀 실천"**
**국가유산청, 유산 지정서 전달**


국가유산청은 10월 28일 서울 봉은사에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가운데)과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국장(오른쪽).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공덕을 닦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를 회향하며 육바라밀 실천을 발원했다. 이번 생전예수재는 올해 7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설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봉은사와 봉은사 생전예수재보존회는 10월 28일과 29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했다. 28일 회향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봉은사 생전예수재 어장 법안 스님(조계종 어산종장) 집전으로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신중작법, 괘불·불패 이운, 도량건립, 사자단, 법요식, 금강경 합송, 상단 증명단 순으로 거행됐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중단 시왕단, 고사단, 함합소, 마구단, 시식, 봉송회향이 이어졌다.

앞서 봉은사는 9월 11일 생전예수재에 입재해 매주 수요일 보시(초재), 지계(2재), 인욕(3재), 정진(4재), 선정(5재), 지혜(6재)를 주제로 49일간 정진해 왔다. 10월 14일에는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는 곳인 명부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에 생명을 불어넣는 택전점안의식도 진행했다.

인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 국가무형유산 지정 후 처음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설행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마지막까지 여법하게 회향하겠다"고 밝혔다.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재의 의미를 설명하며 육바라밀 실천으로 진정한 행복에 다가가길 기원했다.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공덕을 닦는 의례"라며 "참회와 선업의 실천이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바라밀 수행은 나와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보시와 지계, 인욕을 바탕으로 성불의 삶을 열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서를 봉은사에 전달했다.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국장은 "생전예수재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던 건 봉은사 사부대중의 헌신과 삶과 수행을 일치시키려는 불자들의 신심 덕분"이라며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계기로 불교 의례의 가치가 후대까지 온전히 이어지길 바란다. 국가유산청도 불교 의례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재를 포함한 모든 불교 의례의 가치가 인정돼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위상을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기사 전문보기▶

### 봉은사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고려 시대부터 시작돼 조선 중기에 성행한 불교 의례다. 〈동국세시기〉에는 '경기도 광주 봉은사(현재의 봉은사)에서는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불공을 드린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봉은사는 1993년부터 신행운동으로 생전예수재를 이어 왔으며, 2016년 원명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윤달에 한해 간소히 설행되던 예수재를 전통의례로 복원했다. 2017년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를 설립했고, 2019년 10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후에도 생전예수재의 역사적 · 불교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명한 결과 올해 7월 15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일체 업보 참회합니다"

**10월 29일 경내 대적광전 일원서**
**종정 운경 스님 등 500여 명 동참**
**참여 대중 국태민안 · 업장소멸 발원**
**상진 스님 "불교유산 전승에 최선"**


삼보의 가지력에 의지해 영가들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는 관욕 의식에서 보존회장 상진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삼증사가 수인을 맺고 있다.

국태민안과 현생 업장 소멸을 발원하기 위한 법석이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에서 펼쳐졌다.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회장 상진 스님, 이하 보존회)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10월 29일 청련사 대적광전과 명부전 일원에서 '국태민안과 삼세인과 소멸을 위한 청련사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청련사 생전예수재의 어장과 법주는 보존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청련사 회주)이 맡았으며 보존회 회원 60여 명이 의식 설행에 동참했다. 또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바른 삶을 살길 발원한 500여 사부대중도 함께했다.

생전예수재는 도량을 옹호해 줄 호법성중을 모시는 시련과 설판재자의 제영가와 일체 고혼 영가를 맞이하는 재대령, 삼보의 가지력에 의지해 영가들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는 관욕이 진행됐다.

이어 〈화엄경〉 '세주묘엄품'에 등장하는 천신과 성중 104위에게 수행자를 보살피고 도량을 수호해 불사가 원만성취를 발원하는 신중작법, 법회의 주인공인 부처님을 예수도량 중정으로 모시는 괘불이운, 지전을 명부에서 쓸 수 있는 재화로 만드는 조전점안, 경함에 경전을 이운하는 경함이운, 불보살과 성현에서 공양을 올리는 운수상단 등이 거행됐다.

이어진 예수시왕생칠재 본식은 소청사자, 봉송사자, 소청 중위, 소청고사, 마구단 불공, 관음시식, 전시식, 경신봉송, 봉송회향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식 동참 대중은 스스로 참회하며 삼업을 청정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법상에 오른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재(齋)의 중요성을 설하며 "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도 이익되고 타인도 이익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이루는 것"이라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공양을 올리는 모든 행위는 결국에는 내가 잘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2022년 역사적 가치와 전통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도 청련사는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계승해 불교문화의 가치를 끊임없이 이어감은 물론, 민족의 유산이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양주시의 자랑인 청련사 생전예수재가 자신과 세상을 맑고 밝게 정화하는 인류문화자산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주=신중일 기자
기사 전문보기▶

###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豫修十王生七齋)

청련사 예수시왕생칠재는 조선의 비보사찰이자 왕생발원사찰인 청련사에서 왕실과 국태민안을 발원하며 봉행해 온 의식이다. 근현대 경제어산 동교(東郊)파 소속으로 능해, 덕봉, 청호, 춘담, 벽파, 백우, 상진 스님이 계보를 이어 오고 있다. 1960년대부터 스님들이 범패와 작법, 장엄으로 생전예수재를 봉행하며 수 대에 걸쳐 의식을 이어 온 역사성을 인정받아 2022년 5월 경기도 무형유산에,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지정됐다.

매년 9월 9일 중양절에 칠칠재로 회향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자신의 업장을 닦고 조상 영가를 위해 제수를 올려 효행을 실천한다.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9~11/4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불교를 알고 싶어요 | 돈관스님 | 동국대학교 출판부 | 6 | 부처의 인생 조언 | 정운 | 유노북스 |
| 2 |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 | 최준식 | 김영사 | 7 | 화엄경 약찬게 풀이 | 김현준 | 효림 |
| 3 |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 석지현/윤창화/일지 | 민족사 | 8 |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 원영 | 불광출판사 |
| 4 | 일곱 번의 작별 인사(무비스님의 49재법문집) | 무비 | 불광출판사 | 9 | 산사는 깊다 | 지안스님 | 불광출판사 |
| 5 |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박산무이스님의 참선경에) | 원택 | 장경각 | 10 |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 | 월호 | 맑은소리 맑은나라 |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월호스님의 게송명상 | 월호 | 맑은소리맑은나라 | 6 |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 김성철 | 오타쿠 |
| 2 | 요가디피카 | 아행가/현천 역 | 선요가 | 7 | 열반경(1) | 이운허 옮김 | 동국역경원 |
| 3 | 부처님의 생애 | 교육원 편찬위 | 조계종출판사 | 8 |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 각묵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 4 | 닦는마음 밝은마음 | 김재웅 지음 | 용화 | 9 | 청정도론(1) | 붓다고사/대림 | 초기불전연구원 |
| 5 | 뜻대로 안돼도 괜찮아 | 한상희/윤정운 그림 | 운주사 | 10 | 불경 (SUTTA) | 이중표 편역 | 불광출판사 |

# 지금 여기, 완전함을 자각하라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
자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3만원

**8번째 박사학위 논문 바탕 저술**
**불안 시대 치유책 '관점 전환' 제시**
**동아시아 정신문화 핵심 직면해야**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한방에 깨닫는 법'. 수행도 숏폼처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일까 싶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은 신간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에서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핵심 사유와 수행 전통을 직면하라"고 역설한다.

스님은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를 '세상을 부정하는 이원적 사고'에서 찾는다. 서구 근대철학이 '결핍의 인간'을 전제했다면, 동아시아 일원론은 '이미 완전한 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욕망을 억누르지 않으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혜를 찾는다. '이미 완전한 나'를 환기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정신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자현 스님은 "물질문명의 한계에 직면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명상과 같은 정신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며 "그러나 인도의 불교나 요가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과 달리, 동아시아 전통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불교의 전래 과정과 유교·도교와의 결합 등 정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현 스님은 책에서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정신문화에 대한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담론을 펼친다.

1장에서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과 선행 연구를 살핀 후 2장에서는 동아시아 명상의 배경이 되는 일원론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인간 완성과 명상의 핵심인 심성론을 검토하고, 4장에서는 동아시아 명상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한다.



자현 스님은 10월 28일 서울 월정사문화원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마음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를 종합해 스님은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특징을 △현재의 지금에서 완성 △현실의 모순 그대로를 직시함 △인식 환기를 통한 관점 전환 △현재의 인정과 욕망 긍정 △걸림 없는 대자유 △타자에게 어떠한 강요도 없는 미학적 관점이라는 6가지로 제시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관점 전환'이다. 같은 현실이라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 자체가 '깨달음의 문'이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불교의 수행이란 결핍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본성을 환기하는 혁명"이라며 "이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배우고 그 자체로 행복이 되는 영원한 자유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님의 여덟 번째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책이라 읽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실을 떠나 이상을 찾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함을 자각하라."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한방'이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닫는 삶의 전환이다.

# 성철 스님의 유식, 수행으로 읽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과 유식
김명우 지음
장경각 / 3만원

**팔식·51심소로 해석한 〈백일법문〉**
**유식 입문자-수행자 아우른 지침서**

퇴옹 성철 스님(1912~1993)의 열반 32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백일법문〉에 담긴 유식사상을 '팔식(八識)'과 '51심소(心所)'라는 두 축으로 깊이 있게 해석한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백일법문〉 연구에 천착해 온 김명우 교수(동의대 교양학부)다.

성철 스님은 "깨달음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중국 명대의 참선 수행자이자 교학의 일인자였던 감산 스님과 그의 손상좌라 할 수 있는 지욱 스님의 주석서를 근거로, 현장 스님의 〈팔식규구(八識規矩)〉를 새롭게 풀어냈다. 김 교수는 이 점에 주목해 감산 스님의 〈팔식규구통설〉, 〈백법논의〉와 성철 스님의 법문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성철 스님이 어떻게 유식의 난해한 논리를 수행자의 언어로 재해석했는지 세밀하게 추적한다.

1장은 유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을 용어들과 유식의 완성자인 세친 보살에 대해 설명한다.

2장은 〈백일법문〉과 〈팔식규구통설〉을 비교해 팔식에 대한 성철 스님의 입장을 규명한다.

3장은 팔식과 함께 작용하는 51심소에 대해 살핀다. 특히 〈백법논의〉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51개소 심소 전부를 순서로 살폈다. 저자가 "참선은 물론 명상 수련을 하거나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 책은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수행 지침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수령 기자

# 〈화엄경청량소〉 40권 디지털 불사 완료

**반산 스님, 20년 〈화엄경〉 역경 성과**
**5년 전 35권 완간…해제 등 5권 추가**
**"전자책으로 경전에 새 생명 불어넣어"**

청량 징관 스님이 저술하고 반산 스님(양산 원각사 주지)이 역주한 〈화엄경청량소〉 전 40권이 전자책으로 출간됐다.

〈화엄경청량소〉는 청량 스님이 〈화엄경〉을 해석하고 주석한 책으로, 불교 교리와 수행 이론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교학의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반산 스님은 봉은사 소장 목판본 80권 〈화엄경소초회본〉을 저본으로 원문을 직접 입력하고, 소(疏)와 초(抄)를 직역 원칙에 따라 번역했다. 일부에는 스님의 견해를 덧붙였으며, 문체는 간결하게 다듬었다.

반산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화엄경〉 역경 불사에 매진해 7처9회 39품을 완역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권의 〈화엄경청량소〉를 출간했다. 이번 전자책은 기존 35권에 해제에 해당하는 〈화엄경 현담〉(3권)과 〈보현행원품별행소초〉(2권)를 추가해 40권으로 체계를 완성했다.

〈화엄경 현담〉은 경의 성립 배경과 교학적 위치, 찬술 경위 등을 서술해 방대한 〈화엄경〉의 사상 체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다. 〈보현행원품별행소초〉는 깨달음의 실천을 설한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담아 수행의 결론을 맺는 품이다.

전자책에서는 기존 출간서에서 생략됐던 원문과 번역문 100여 곳을 복원하고, 오탈자를 수정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 원문과 번역문을 병기해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21일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반산 스님은 "청량 징광 스님의 소·초는 전거가 분명한 문헌으로, 후학이 신뢰할 수 있는 불교 교학의 근본 자료로 남기고자 했다"며 "사장된 자료를 복원해 시대에 맞는 디지털 경전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이번 불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반산 스님은 출판간담회에서 〈화엄경청량소〉(전 40권)의 전자책 출간 소식을 알렸다.



2020년 출간된 〈화엄경청량소〉(전 35권).

반산 스님은 통도사에서 고원 명정 화상을 은사로 득도하고 해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학,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쌍계사승가대학 강주 등을 역임하고 현재 양산 원각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화엄경청량소〉, 〈재미있는 화엄경〉, 〈재미있는 법화경〉,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등이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2025년 새로 나온 불광출판사의 어린이 책!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
모니카 쿨링 글 | 시드니 스미스 그림
40쪽 | 값 16,800원




나는 무죄다
다비데 오레키오 글 | 마라 체리 그림
40쪽 | 값 16,800원




세상을 바꾼 도서관
캐서린 패터슨 글 | 샐리 덩 그림
112쪽 | 값 22,000원




만약에 어느 날…
브루스 핸디 글 | 애슐리 코린 그림
40쪽 | 값 16,800원




나의 해파리 소년
니콜 고드윈 글 | 크리스토퍼 닐슨 그림
40쪽 | 값 16,800원




모모의 여름 방학
야엘 아쌍 지음
128쪽 | 값 14,000원




꿈이 왔어요
미요시 아이 글·그림
40쪽 | 값 16,800원

우리는 언제나 사이에 있어

졸업, 새학기, 이사, 취업, 모든 순간에서 방향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책




10월 최신간

위도 아래도 아닌 곳,
안도 밖도 아닌 곳에 '사이'가 있어요.
사이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지요.
다리와 사다리, 계단과 경사로 같은 곳이
바로 사이지요.

알렉스 킬리언 글 | 그레이디 맥퍼린 그림 | 최현경 옮김
40쪽 | 값 16,800원

불광 어린이 인스타그램 bkbooks_child | 02-420-3200 | kimdh2321@naver.com

불광어린이

# “한국불교 전통 법음 향연…수계 통해 성찰·치유”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법회’ 봉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허 스님이 행사 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미리 만나는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법회

### Interview 봉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허 스님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서

태고종도·시민 1만 명 참여 예정

종정 운경 대종사 등 증명 참석

전계대화상에 율사 수진 스님

7개국 선지식 칠증사 동참 수계

“지친 국민에게 위로의 장 될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는 태고종을 대표하는 불교의례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매년 서울시와 함께 영산재를 봉행하며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기원해 왔다.

올해 태고종은 영산재와 더불어 조금 더 특별한 법석을 펼친다. 오는 11월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봉행되는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다. 지난 10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법석의 원만 진행을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태고종도들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 법석은 태고종이 지난 20여 년간 진행한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 봉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허 스님(태고전승문화사업단장)에게 법회 준비 상황과 진행 계획 등을 들었다. 다음은 스님과의 일문일답.

**Q 태고종 영산재 · 국제수계대법회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이번 법회는 전국 태고종도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영남, 호남 등 먼 지역의 교구 종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중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만큼은 오랜만에 종단이 함께하는 대법회로 많은 이들이 동참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명 가량이 법회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이번 대법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우선 태고종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전통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지난 20여 년간 태고종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대내외 신뢰가 떨어진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께서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종단은 안정화와 발전의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의 발원과 원력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종단 위상 변화와 발전 방향을 보여 주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Q 앞선 간담회에서 상진 스님께서 종사이운 의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의식이며, 법회 당일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됩니까?**

A. 종사이운은 법회에서 가장 장엄한 의식으로 종정예하와 율사, 국내외 증사 스님들을 법회장으로 모시는 의식입니다. 불교 취타대의 행진과 함께 스님들이 입장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불교문화 예술입니다. 불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봐도 경건하고 감동적인 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전체 행사 구성이 궁금합니다.**

A.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는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종사이운으로 시작해 법어와 본식, 수계의식으로 진행됩니다. 수계의식 후에는 국가지정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가 설행됩니다.

영산재는 본래 도량의 마당에서 펼치는 대형 불교의례입니다. 여기에는 음악·무용·공예 등이 어우러져 있어 불교종합예술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이번에는 영산재의 진수만 모아 공연 형식으로 대중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영산재 후에는 문화축제가 펼쳐지며, 행사장에는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운영됩니다.

**Q 올해에는 국제수계대법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A. 이번 법회는 국내외 선지식과 태고종도, 국내외 불자, 시민, 다문화 가족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적 법석이 될 예정입니다. 해동율맥 수진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호법원장 구산 스님이 교수아사리로 참여하며 증명으로는 종정 운경 스님, 승정원장 금용 스님, 원로의장 호명 스님이 증참하십니다.

또한 수계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과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북미 등 7개국에서 방한한 스님들이 칠증사로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참여 해외 스님으로는 △나냐난다 스님(스리랑카) △랏끼차폰 스님(태국) △난 다카 스님(미얀마) △틱하이안 스님(베트남) △쿤상 도제 라마 스님(네팔) △법미 스님(태고종 미주-유럽 교구장) △계륭 스님(중국) 등 해당 국가에서 가장 인망이 두터운 선지식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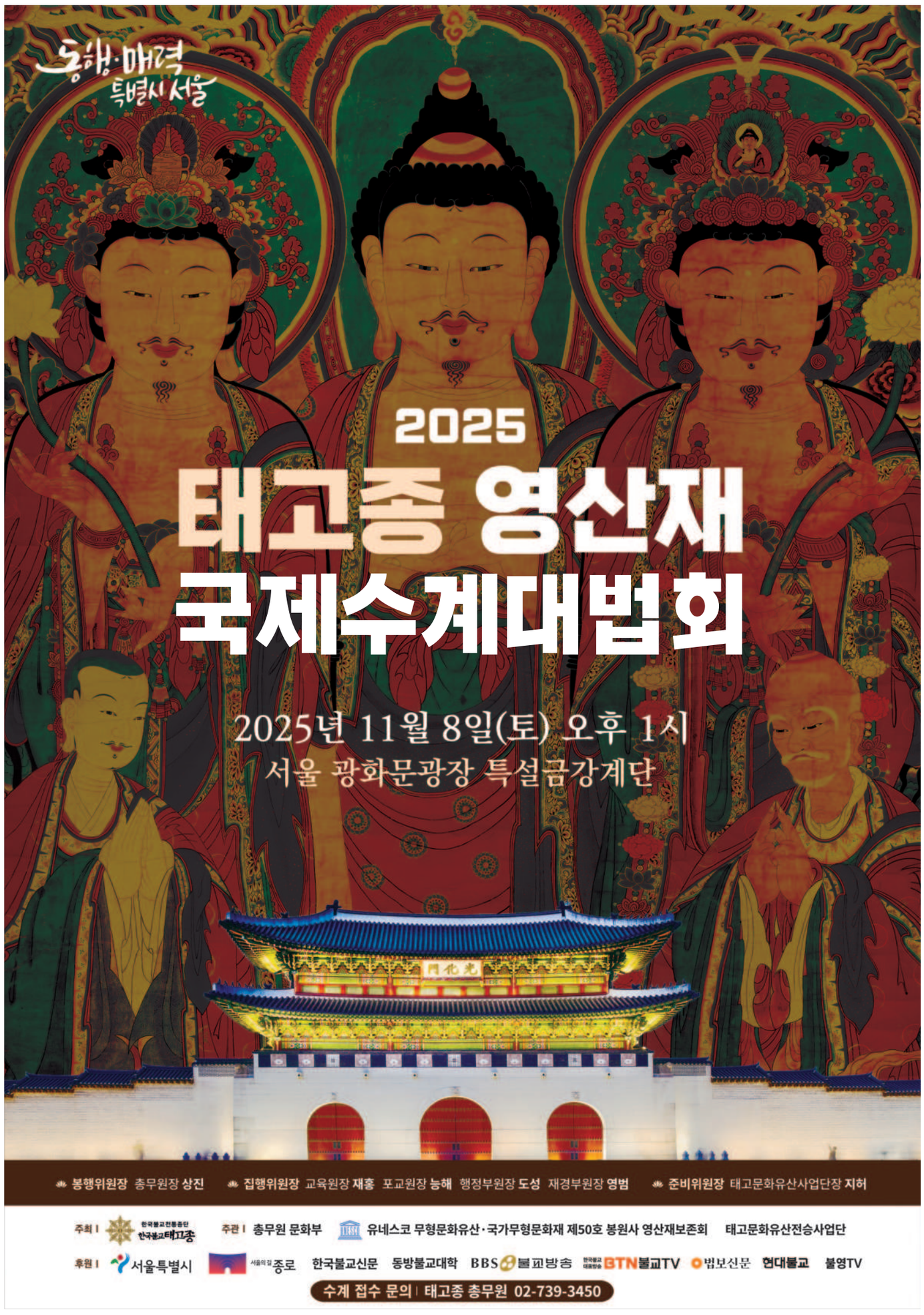
이에 따라 법회에는 국내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 이주노동자, 귀화 불자 등 약 1000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한국 내 법당 공동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Q 일반인도 수계법회에 동참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태고종도, 불자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종단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수계입니다. 이는 자기 정화와 치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과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A. 이번 행사는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니라,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하기 위한 장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영산재와 수계대법회를 통해 마음의 정화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나가다 잠시 들러 법음(法音)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한순간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1 팔자를 고치자



▶한줄 요약
고락의 감정을 업장(業障) 또는 팔자라고도 합니다. 업장소멸(業障消滅) 또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락의 감정 두 가지 모두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 ‘苦樂 인과’를 끊어야 팔자가 변한다

업장 · 팔자가 바로 ‘고락의 감정’
업장소멸하려면 고락을 제거해야
‘身口意 청정’은 無분별해야 가능
감정 끊어 내면 부처 되는 길 보여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푸른 하늘 흰 구름 나의 벗이요,**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정다운 이웃일세.**
**기러기와 함께한 이 하늘 멀다 걱정 않고**
**한강물 마신 이 물 깊다 원망 않네.**

푸른 하늘, 흰 구름, 맑은 바람, 밝은 달과 정다운 이웃이 되려 하는가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여의려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팔자를 고쳐 ‘부처 놀이’를 해야 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성불에 있습니다.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부처가 돼야 할까요? 고통과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설명은 수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똑같은 질량(質量)의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찰나에도 고락(苦樂-즐거움, 괴로움)의 감정이 서로 교차하지만, 때로는 평생을 나누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전생과 금생, 내생에 의해 교차 윤회하며 과보(果報)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락의 감정을 업장(業障) 또는 팔자라고도 합니다. 업장소멸(業障消滅), 또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락의 감정 두 가지 모두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락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인과에 대해 굳건한 신심(信心)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연의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즐기고자 하는 마음,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등등. 한마디로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더 이상의 과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말고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착하게, 남을 위해, 정의롭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자비롭게 등의 선(善)에 대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다른 저것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저것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인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므로 태어난다 죽는다는 모두의 생각 자체를 없애야 태어남도 죽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라 하고, 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곧 분별된 두 가지 생각, 분별된 두 가지 말, 분별된 두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인과에 걸리고 저것을 선택해도 결국은 인과에 걸리기 때문에 최선은 무심히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난 다음 절대 후회하면 안 됩니다. 생기는 감정을 무조건 놓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화롭기 이를 데가 없어지고 모든 장애가 사라지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善)이 되고 정의(正義)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고 무심한 상태에서의 행동과 말과 생각은 절대 과보를 받지 않게 되므로 이는 곧 가장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어 팔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외의 것들은 그 어떤 선과 정의가 부르짖어도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므로 절대 인과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용기도, 힘도, 에너지도 없으면 우선 보시와 기도, 정진을 통하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의 명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불만이 생기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불만은 사라지리.**

입산 출가해 절집에 들어온 초심자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하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나, 적어도 마음을 한 단계 낮추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보다 더 나쁜 것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편치 않은 마음이 사라지고 불만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고,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둘을 받는데 본인은 하나밖에 받지 못한다면 ‘하나도 갖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욱 기분 나빠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모두가 잃고 빼앗기는 것에 민감합니다. 도리어 뺏기지 않으려 목숨 걸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와 마음의 구조는 결국 공(空)으로 무(無)로 돌아갑니다.

파도가 아무리 이리 치고 저리 쳐도 파도는 높았다 낮았다할 뿐, 바다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태어난 것은 결국 죽습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습니다. 빼앗기고 잃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 얻을 때 얻고 잃을 때 잃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거나 속상해한다고 달라지지 않으니 스스로만 괴롭힐 뿐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잃는 것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잃고 빼앗기는 것을 아쉬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빼앗기거나 잃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그때마다 속상해하는 마음 대신 ‘잃을 때의 인과가 생겼구나, 빼앗길 때의 인과가 생겼구나’라고 더 이상의 미련과 집착 없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즉시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속상한 마음이 금방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두 업(業)의 습(習)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인과를 굳게 믿는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한 치 오차 없는 인과가 인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점의 공짜도 없음이니, 얻고 잃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리.

〈조계종 총무원장〉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20 인드라망 : 조동화의 '나 하나 꽃 피어'

▶한줄 요약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는 하나의 힘이 작동하면 얼마든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 하나의 힘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대학 시절 어른들에게 자주 듣던 말이다. 학생 시위가 빈번했던 80년대 대학 캠퍼스엔 전경들이 쏘아 댄 최루 가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독재 정권을 향한 학생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시절이다. 이때 어른들은 너희가 아무리 데모한다고 해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체제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살라고 훈계했다. 거기에는 시위하다가 다치거나 인생이 망가질 것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 또한 담겨 있었다. 자식 또래인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던가.

그런데 1987년 6·10 민주 항쟁을 시작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뽑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행정부의 수반을 선택하게 됐다.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어디 그뿐이던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케이팝과 케이푸드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 또한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했던 세상이 변한 것이다.

오늘날 군사독재로 시달리는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변화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케이민주주의'를 수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6·25 전쟁, 군사 독재 정권의 악몽 등을 생각하면 참으로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이끈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마디로 '하나'가 수많은 하나, 즉 '여럿'이 되어 에너지를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약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를 읽다가 그 안에서 하나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인은 꽃 하나 피어 풀밭이 달라지거나,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너와 내가 꽃 피면 풀밭이 꽃밭으로 변하고, 마찬가지로 너와 내가 물들면 산이 온통 활활 타오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전체가 되는 멋진 신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언제부턴가 이 짧은 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마치 시의 내용처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여럿이 돼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조동화 시인은 197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낙화암'이라는 시가 당선돼 등단했다. 이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가 당선되기도 했다. 〈낙화암〉을 비롯해 〈산성리에서〉, 〈눈 내리는 밤〉, 〈나 하나 꽃 피어〉 등 많은 작품이 있다. 유심작품상과 통영문학상 등 수상 경력도 많다. 2017년에는 경주에 '나 하나 꽃 피어' 시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원래 '나 하나 꽃 피어'는 1995년 발간한 〈처용 형님과 더불어〉에 수록된 작품이다. 그런데 어느 이름 모를 네티즌이 이 시를 카페와 블로그에 올리게 됐다. 이 시를 접한 사람들은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지 여기저기 퍼 나르면서 불길처럼 번지게 됐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것이다. 2012년 7월에는 어느 대안학교에서 전교생이 이 시를 낭독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시가 더욱 유명해진 사건이 있는데, 2012년 11월 당시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 시를 낭독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믿습니다. 함께 꽃피우실 거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어느 회사에서는 사원들이 출근하면 이 시를 낭독하고 일과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시는 노래로도 만들어져 경연 프로그램인 '팬텀싱어'에서 선보여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널리 알려지다 보니 작은 오류들도 발견됐다. 예컨대 제목이 '나 하나 꽃 되어'로 알려지는가 하면, 시인의 이름이 '조병화'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인은 2013년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집을 내고 이러한 사연을 독자에게 전해 주었다. 직접 감상해 보자.

**하나가 전체 되는 신세계 보인 시**
**변화, 한 사람 작은 행동서 비롯**
**하나의 힘 연대할 때 역사 바뀌어**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 나 하나 물들어 /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 말하지 말아라 /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 결국 온 산이 활활 /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인드라망의 힘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1992년 개봉한 '파워 오브 원(The power of one)'이란 영화가 떠올랐다.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 청년이 일으킨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이 영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 주었다. 특히 한 사람의 작은 힘이 커다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온 영화다. 그는 부조리와 모순이 난무하는 폭력적 체제에 맞서 싸우면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다. 변화란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가능하지만, 그 시작은 결국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하나의 힘이 강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머금고 있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화엄경〉 60권 전체를 210자로 압축한 법성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가 곧 전부요, 여럿이 곧 하나다(一卽一切多卽一)."

짧으면서도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이처럼 일체를 머금고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힘이 한번 작동하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전체를 물들이는 것이다. 이는 마치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드라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넓고 큰 그물에 매달린 종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비유다. 촘촘히 엮인 각각의 그물코에 종을 매달아 놓으면, 하나의 종을 쳐도 전체의 종에서 소리가 울린다. 종마다 그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몰고 온다는 나비효과도 있지 않은가. 하나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우리들 삶과 자연의 이치다.

문제는 그 작은 하나가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작동하면 반응을 일으키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80년대 어른들은 어찌 보면 그 하나가 작동하는 힘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나 하나 움직인다고 세상이 변하겠어?'라는 마음이 앞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는 하나의 힘이 작동하면 얼마든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하나의 꽃이 풀밭을 꽃밭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단풍 하나 물들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다. 그러니 나 하나 꽃핀다고, 나 하나 물든다고 세상이 변할 수 있겠느냐는 나약한 소리는 거두기로 하자. 나뭇가지 하나는 연약해서 금방 부러트릴 수 있지만,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아주 단단해져서 쉽사리 부러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가 또 다른 하나와 연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그 힘이 엄청나게 세진다. 그 에너지로 역사는 바뀌는 것이다.

인드라망처럼 엮인 하나의 힘이 작동해 서슬 퍼런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선인들은 3·1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12·3 계엄의 밤에도 이름 모를 한 사람의 힘이 작동해 많은 시민이 여의도로 몰려나왔다. 스마트폰과 SNS라는 인드라망을 통해 종소리가 사방으로 전해져 거리로 나온 것이다. 비록 두렵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어 장갑차를 가로막자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힘을 보태고 그렇게 모인 에너지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계엄을 막아 냈다.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위대한 역사다. 앞선 글에서 인용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대사다.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떼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유채꽃 하나 피면 옆에 있는 꽃들도 보고만 있지 않는다. 시인의 지적처럼 네가 꽃 피면 나도 꽃 피고 그렇게 떼로 피기 때문에 풀밭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뀐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드라마 대사처럼 혼자였으면 수없이 꺾이고 좌절했을 인생이다. 함께였기에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 낸 것이다.

이제 '나 하나쯤'에서 '나부터'로 방향 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하나의 힘이 작동해서 널리 퍼지면, 무명초(無明草)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풀밭이 지혜와 자비 가득한 정토라는 꽃밭으로 바뀔 수 있다. 불교의 파라다이스 불국정토는 이렇게 세워진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553호 | 15 | 전면광고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나니, 이것이 바로 즐거움 가운데서도 최상의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포집
- 요사 : 30평, 산 밑
- 매가 : 8억, 차량진입

- 위치 : 서울
- 면적 : 200평, 사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산 밑 차량진입
- 매가 : 25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1동 / 종무소 · 객방 13평-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천만원/월세 60만원(절충가능)
- 집기 일체 3천만원(절충가능)
- 4층 전세 사용 함

010-4179-6212

##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작은 보시금으로 매입 가능합니다!)

010-8961-5489

##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산 130-7번지
- 총토지면적 : 546평
  *대지199평, 건평25평1동(1억 2천)
  *임야 247평(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5천), 도로 약 100평
- 총가액 : 1억 7천만원(일부 조정 가능)

010-8833-694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 산 3900평 대지258평
- 건물3동(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 주차 가능, 경주시 15분 거리
- 가액 : 3억 5000만원 (집기일체, 절충가능)

010-4554-5984

##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산하
- 부지 1330평
- 대웅전(60평), 요사채(40평), 황토방(10평)
- 상수도, 지하수, 전기(태양광 포함 15k)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8억 8천만원

010-6372-8968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33평
- 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
-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광명선원 043-224~2474
010-3222-2474

##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 도심 최고 중심사찰부지 안내

지금의 사찰은 도심의 최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대구시민 240만 인구의 최고 중심
-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 불교5대종단 內 소유 종교용지(나대지)
-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도심속의 명당
- 종교용지 490㎡, 추가 130㎡ 매입가능
- 매매가격 : ㎡당 350만원(협의가능)

053-745-9999, 010-2512-7777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격 문의 바람

010-5635-9499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 3층 건물 중 3층 위치, 약 60평
- 대법당, 소법당, 모임실, 공양간 등
- 창고, 남녀 화장실, 10평 테라스
- 프로젝터, 방송장치 등 구비 (강의 진행 바로 가능)
- 월세 : 100만원 • 보증금 : 2000만원
- 시설 권리금 : 협의

010-3269-9847

## 토 지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마거리
- 6000평(토지)
- 토지용도 : 전
- 태양광, 흑염소 농장 적합
- 귀농 하실 분 가능
- 평당가격 : 13만원

010-8801-2738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불교미술의 자존심! 聖鐘社 명품 범종 -성종사의 아름다운 표면처리기술-



브론즈착색(에밀레종)



유광 처리(해인사종)



부분 개금(운수사종)



부분 칠보(4보살종)/신제품



칠보 개금(칠보종)

범종명가 성종사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35 / Tel : 043-536-2581 / Fax : 043-536-2582 / 홈피 : www.sungjongsa.co.kr / e-mail : won6141@hanmail.net / 대표 : 범산 원광식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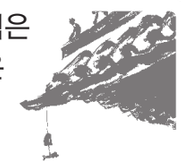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안내

1553호 | 16 | 전면광고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아함경》에서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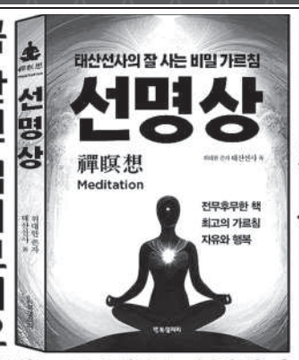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 한국전통무용(춤)
• 전 통 민 화(그림)
자 격 증
1급~2급 지도강사
-간단한 절차로 취득 기회-
대한민국장인포럼
서울시 중구 수표로 22 아세아빌딩602호
상담 010-3007-1183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희귀병 상담

•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 무엇인가 알면서도 해결 못하시는 분
• 매일같이 몸이 아프신 분
•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으신 분
합천군 가야면 죽전길 132-2 법정사 해산스님
010-7321-0404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 사 십 구 재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창작무. 태평소. 향피리. 등등
대~소 행사 저렴하게 보시합니다.
충남북~서울~경기 일원
소중한 도량불사 중에
큰 공덕이 될것입니다.
봉헌사 주지 성광
041-338-1599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스님, 처사님, 행자, 공양주보살
(75세까지 가능)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국제결혼 무료로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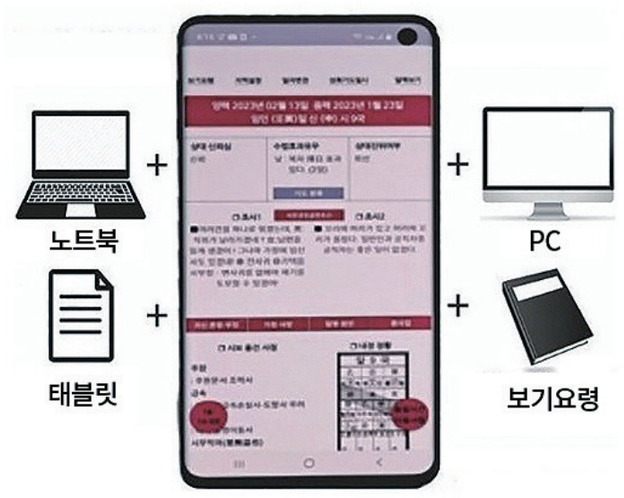
##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㉑ '신입사관 구해령'(2019)

# 기록 남기는 역사의 중요성 전해

조선 중종 14년(1519) 4월 22일 종2품 관직에 있던 김안국이란 인물이 중종에게 여사(女史)직을 두자고 제안한다. 여사는 예전 중국에서 왕후의 의례를 담당하며 그들의 일을 기록하던 직책이다. 김안국의 제안에 중종은 요즘 여인들이 글을 잘 모른다거나 사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그런 중종의 반대를 여러 신하가 끊임없이 반박하며 중종과 신하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중종. 결국 여사직은 생기지 않았다.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은 이 〈중종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여사 제도가 생겼다는 가정하에 예문관의 권지(權知, 인턴 사원)가 된 여사 구해령(배우 신세경)을 중심으로 예문관 사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청나라 연경에서 서양의 문물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낸 구해령은 서양의 서책이 금서가 되는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다. 어느 날 여사 별시가 열린다는 방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해령. 송사희(배우 박지현), 오은임(배우 이예림), 허아란(배우 정유빈)과 함께 여인의 몸으로 과거를 통해 예문관의 관직에 오른 해령은 도원 대군 이림(배우 차은우)의 처소를 전담하게 된다. 도원 대군은 국왕의 둘째 아들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궁궐 구석진 허름한 처소에서 유배된 듯 살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국왕이 폐위시킨 선왕의 아들로 폐주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했어야 하지만, 대비의 간청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드라마의 핵심은 누명을 쓰고 폐위된 선왕의 진실을 기록한 사초(史草)를 찾는 구해령과 도원 대군의 이야기이다. 결국 사초가 발견돼 당시 기록이 조작된 것이 밝혀지고 현 국왕의 반정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다. 그러자 왕은 칼로 사관을 위협하며 이 상황을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 서슬 퍼런 국왕 앞에서 붓을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구해령의 대사가 이 드라마의 백미이다.

"전하, 저를 베셔도 사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죽은 이 자리에 다른 사관이 와서 앉을 것이고 그 사관을 죽이시면 또 다른 사관이 와서 앉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 땅의 모든 사관들을 죽이시고 모든 종이와 붓을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결코 막으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노인에게서 아이에게로,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게 진실의 힘입니다."




사진 출처=MBC 홈페이지

**사초 찾는 구해령 · 도원 대군 이야기**
**부처님 설법 · 계율 결집 통해 기록**
**부처님 법 미래 전하는 것이 우리 몫**

이처럼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은 구해령과 도원 대군의 로맨스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하여 그것을 역사로 남기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묵직하게 전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가장 먼저 제자들이 착수한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활 규범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의존해야 할 것은 가르침뿐이었고,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후대에 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결집(結集)'이라고 하는데, 아난존자와 우바리존자가 각각 부처님의 설법과 계율을 암송하면 현장에 모인 500명의 제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것만을 부처님의 법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가르침은 전원의 암송으로 전승됐다. 그래서 결집을 다른 말로 '합송(合誦)'이라고도 한다. 이후 스승에서 제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부처님 법어집'은 몇백 년 후에야 문자로 기록됐고 이후 각 지역의 언어로도 번역돼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던 아난존자의 입을 통해서 결집이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경전이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말과 함께 언제 설법했는지, 누가 설법했는지, 어디에서 설법했는지, 누가 설법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덧붙어 모든 경전의 정형구가 되었는데, 중국불교에서는 이러한 정형구를 믿음[信, '如是'], 들음[聞, '我聞'], 때[時, '一時'], 설주[主, '佛'], 장소[處], 대중[衆]의 여섯 가지 인연이 갖춰져야 비로소 경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육성취(六成就)'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

'육성취'가 경전을 성립시키는 정형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재현하면서 단순히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설법이 이뤄지던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함께 거론한 덕분이다. 말하자면 아난존자는 승단의 사관이고 부처님의 법어집은 '부처님 실록'이 된 셈이다. 덕분에 우리는 무려 2500여 년 전의 부처님 설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려도 실록을 편찬했다. 당시 왕궁 안에 보관하는 실록 외에 여벌의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로 해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실록을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에 나눠 보관함으로써 전쟁 등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전통이 조선에도 이어져 정족산(전등사), 묘향산(보현사), 태백산(각화사), 오대산(월정사) 등에 사고를 따로 두고 수호사찰을 지정했다. 결론적으로 고려와 조선의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는 데 불교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해인사 장경각에 팔만대장경판을 1000년 넘게 보존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활 규범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잇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잇는 사람이다. 불교의 권위를 부처님이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규범에서 찾음으로써 불교는 현재까지 유서 깊은 역사를 지속할 수 있었다.

긴 세월, 수많은 중생들의 등불이 되어 온 부처님 법을 미래에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부처님의 정신을 오롯이 담으면서도 현대라는 시대에 맞게 후손들에게 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불교가 시대와 호흡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그 옛날 아난존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모두 눈 밝은 '사관'이 되고 '여사'가 되어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교 역사이기 때문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 악법 여의고 선법 닦으며 벗의 그릇·복밭을 떠나지 않아



법공 스님의
## 〈지장십륜경〉 강의

㊶ 천신의 가호(諸天鬼神加護)

그때 대중 속 천제와 그 권속들은 부처님 발에 정례한 뒤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이후 오백세 미래에 부처님 국토에서 법이 멸하려 할 때 만일 착한 왕과 권속 등이 스스로도 이 십종의 악륜(惡輪)을 멀리 떠나고, 남도 권해 떠나게 하면, 자타와 후세와 삼보의 종성을 이어서 모두가 치성하여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 권속들은 착한 왕과 바라문 등을 옹호하여 십법(十法)으로 더욱 증장하게 할 것입니다.

증장시킬 십법이란 ①수명과 ②어려움 없음과 ③건강과 ④권속을 증장시키고 ⑤재보와 ⑥필수품과 ⑦자재함을 증장시키며 ⑧명예와 ⑨착한 벗과 ⑩지혜를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착한 왕과 바라문 등이 악법을 떠나고 남도 권하여 떠나게 하여 앞에 말한 공덕을 다 갖추면, 그들을 옹호하여 반드시 십법의 증장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또한 우리들은 더욱 힘써 옹호하여 또 다른 십법을 모두 멀리 떠나게 할 것입니다.

떠나야 할 십법이란 ①일체 원수와 적과 ②좋아하지 않는 일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등을 떠남이며 ③일체의 괴로운 병과 ④삿된 집착과 나쁜 소견을 떠남이며 ⑤삿되고 허망한 귀의(歸依)와 ⑥일체 삿되고 악한 재앙과 괴변과 ⑦삿되고 악한 사업을 멀리 떠남이며 ⑧삿되고 악한 벗과 ⑨모든 집(가족, 가문)이 물 고인 진흙탕을 떠남이며 ⑩불시에 요절(夭折)함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착한 왕 등이 십법을 멀리 떠나 공덕이 원만하게 되면 우리는 힘써 그들을 옹호하여 제왕, 권속과 그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가 십법을 멀리 떠나게 할 것입니다.

또다시 떠나야 할 십법을 말씀드리자면 ①타국의 원수와 적과 ②내 나라 안의 원수와 적을 떠남이며 ③흉악한 귀신과 ④뙤약볕과 큰 가뭄과 ⑤복음(伏陰, 습기)과 비로 인한 막힘을 떠남이며 ⑥때 아닌 때에 한서(寒暑)와 매운바람과 폭우, 서리, 우박 등의 재해와 ⑦나쁜 별의 변괴(變怪)를 떠남이며 ⑧흉년의 굶주림과 ⑨불시의 일체 병사(病死)와 ⑩삿된 집착과 나쁜 견해를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착한 왕 등의 권속들이 앞의 공덕을 닦아 원만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힘써 그들 모두를 반드시 십법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천제와 권속 등을 찬탄하여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그대들은 잘도 서원을 하였으며 그러한 일들은 다 그대들이 할 일이다. 그로 인하여 마땅히 그대들은 긴 밤이 안락할 것이다."

**호국불퇴륜심다라니(護國不退輪心陀羅尼)**

그때 천장대범천은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저로 하여금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모든 착한 왕을 위해 '호국불퇴륜심대다라니명주장구(護國不退輪心大陀羅尼明呪章句)'를 설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위신력으로써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모든 착한 왕으로 하여금 원수와 나쁜 벗에게 항복하지 않게 하고 … 지혜로운 이의 칭찬을 받으며 모든 악법을 떠나 선법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삿된 소견과 삿된 귀의를 항상 떠나 대승을 부지런히 수행하되 용맹스럽고 견고하여 교화해야 할 무량한 유정들을 성취시키며, 지혜는 남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선교(善巧)하여 능히 바라밀을 잘 수행하는 진귀한 보배의 복장을 갖추며 … 사섭법을 좋아하고 법의 그릇과 복밭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장아, 네가 '호국불퇴륜심대다라니명주장구'를 말하기를 허락한다. 나는 그 위신력으로 인해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착한 왕으로 하여금 원수와 나쁜 벗에게 항복당하지 않게 하며,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를 멀리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때 천장대범천은 곧 '호국불퇴륜심대다라니명주장구'를 말하였다.

"타찌따 무니모례1 무나깔바2 무니흐리따예3 무닉아비짜레4 무나깔짜5 무니찌메6 짤바스7발샤바스8 밀바스9 사르바흐리떼10 뚜챠나흐리뜨예11 바따라쟈 흐리떼12 꾸꾸나므리예13 우빠끄사사르예14 까루나하찌리발15 무니발따발16 스바하17."

… 그때 세존께서 대목건련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이 천장대범천이 말한 '호국불퇴륜심대다라니명주장구'를 받들어 지녀야 하고,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모든 착한 왕들에게 전하여, 스스로 받들어 지니게 하고 널리 펴게 하여라."

〈송림사 주지〉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부처님으로 이끄는 진원 스님의 경천동지 법문(法門) 이야기

진원스님 I 207쪽 I 16,000원

우리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극락에 태어나고, 천당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곧 부처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으며, 자신 또한 미혹한 범부로 있다가 마음을 깨쳐 부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세계 일체중생과 부처님은 바로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이 바로 우주세계 일체중생과 부처님,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일체는 마음이 짓고 만들고 세운 것입니다.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 드리는 본 저서는 부처가 되는 길을 떠나야 할 우리들에게 올바른 여정을 제시하여 결국에는 우리들 모두가 부처가 되게 할 것입니다.

문의 : 마음출판 054-856-7252 / 010-5366-4905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㉑ 개금불사로 드러난 나인의 발원

▶한줄 요약
순천 송광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 개금불사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나인 노예성의 삶과 깊은 불심을 여실히 전해 준다.



# 저고리가 품은 궁녀의 불심

〈佛心〉

궁녀(宮女)는 궁중에서 제왕과 그 가족을 시중하고 각종 사무와 살림을 맡았던 여성 관리를 일컫는다. 궁 안에서 일하는 관리이기에 궁관(宮官), 여성의 몸으로서 녹봉을 받는 관리이기에 여관(女官)이라고도 불렸다.

궁녀는 어린 나이에 입궁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궁궐의 각 처소에 배치돼 왕실의 일상생활을 책임졌다. 그뿐만 아니라, 궁녀는 왕실 식구들의 종교 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왕실의 명을 받아 도성 안 구중궁궐과 심산유곡의 사찰을 왕래하며 불사의 매개자로서 활약하는 한편, 규제와 금기 속에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을 부처님께 귀의해 달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9년에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개금(改金)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물(腹藏物)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한 궁녀의 생생한 삶과 깊은 불심(佛心)을 여실히 전해 준다.

## 성수전에서 관음전으로

순천 송광사 대웅전의 왼편에는 관음전이라는 3칸 규모의 아담한 전각이 있다. 그런데 1903년(고종 40) 건립된 이 건물이 처음부터 관음전이라 불린 것은 아니다.

이 전각은 본디 1902년 고종의 성수(聖壽, 임금의 나이)가 망육(望六, 51세)에 이르자 기로소에 입소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건립된 성수전이었다.

기로소(耆老所)는 조선 시대에 나이가 많은 고위 문관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제수하고 70세가 넘은 이들만 기로소에 입소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장수한 임금이 드물었기 때문에 국왕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준을 낮춰 환갑인 60세를 넘으면 기로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 요건마저도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왕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숙종과 영조는 60세가 되기 전에 앞당겨 들어갔고, 고종은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51세가 되던 1902년(고종 39) 기로소에 입소했다.

불과 12살에 왕위에 올라 생명과 나라를 위협받는 등 온갖 수난을 겪어 온 고종의 기로소 입소는 모두가 경하할 나라의 잔치였다. 고종은 송광사에 직접 '성수전(聖壽殿)'이란 편액을 내려 자신의 성수망육을 기념했다. 비록 아담한 규모이지만 전각 내부가 황실 기도처라는 성격에 걸맞게 꾸며진 이유이다.

불전 중앙 칸의 불단 위에는 본래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봉안했고, 후벽 좌우에는 각각 황제와 황후를 상징하는 해와 달을 그렸다.

불전 내부의 나머지 벽면도 일반 사찰 벽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제를 그려 장엄했다. 상하로 구획한 벽면 하단에는 정1품 이하의 고급 관료들이 양손으로 홀(笏)을 들고 경하드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성수전의 성격은 그 앞쪽에 자리 잡고 있던 관음전이 퇴락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바뀌게 됐다. 1957년에 퇴락한 관음전을 해체하면서 관음보살좌상을 성수전으로 옮겨 봉안하고 전각의 이름을 관음전으로 고쳐 부르게 됐다.

## 저고리에 적은 발원

관음보살좌상의 개금 불사 와중에 발견된 복장물은 이 상이 조선 왕실과 맺은 두터운 인연을 드러냈다.

2009년의 조사에서 불보살의 심장에 해당하는 후령통(喉鈴筒) 외에 의류, 발원문, 직물 조각, 전적과 인쇄본 다라니, 유리편 등 모두 556점의 복장물이 발견됐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원문이 적힌 남색의 명주 저고리다. 겉감의 깊이 있는 쪽빛과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는 소색(素色) 안감 위에는 '관음조상발원문(觀音造像發願文)'이 먹으로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이 불상이 1662년(현종 3) 정월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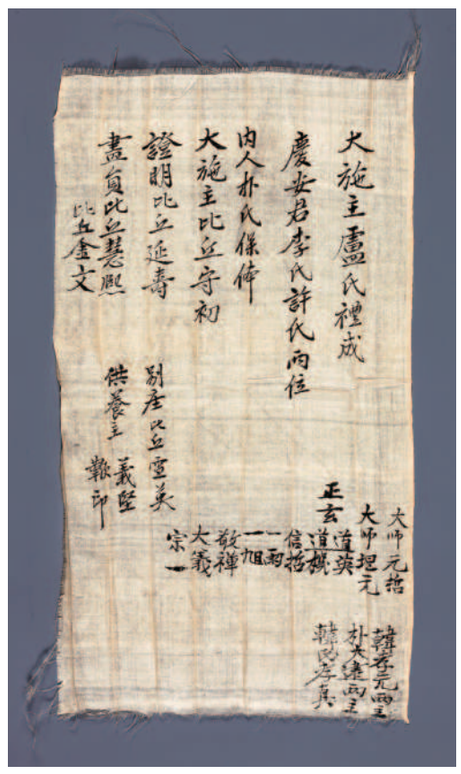
불상의 대시주(大施主)인 나인 노예성(盧禮成)은 신축생(辛丑生, 1601년)으로 당시 이미 62세에 접어든 노년이었다. 자비와 자애를 두루 갖추신 관음보살님께 그녀가 가장 먼저 빈 것은 경안군(慶安君) 부부의 장수였다.

경안군은 소현 세자(昭顯世子, 1612~1645)의 셋째 아들 이석견(李石堅, 1644~1665)에게 내려진 군호이다. 병자호란 이후 청에 볼모로 들어갔던 소현 세자는 9년 만에 귀환했으나 부왕 인조(仁祖)와 갈등을 겪었다. 그는 조선에 돌아온 지 2달 만에 병석에 누웠고 곧 급서했다. 이후 인조는 세자빈인 민회빈 강씨(愍懷嬪 姜氏, 1611~1646)가 역모를 꾸몄다고 하여 그녀를 사사하고 친족들도 몰살시켰다.

소현 세자와 민회빈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됐다. 장남 경선군(慶善君) 이석철(李石鐵, 1636~1648)과 차남 경완군(慶完君) 이석린(李石麟, 1640~1648)은 1년도 안 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막내아들인 경안군만이 8년에 걸친 험난한 귀양살이를 버텨 내고 살아남았다. 그는 방면된 후에도 여러 고초를 겪었으나 장성하여 1661년에는 허씨와 혼인하는 경사를 맞이했다.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선 1622년. 사진=국가유산청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발원문, 조선 1622년, 명주에 먹, 41.0×23.0㎝. 사진=송광사성보박물관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 저고리, 조선 1662년, 명주, 81.0×223.8㎝. 사진=송광사성보박물관

노예성이 불상을 조성한 공덕을 경안군에게 회향한 것으로 보아 그녀는 소현 세자 내외를 가까이서 모시며 왕자들을 돌봤던 나인으로 짐작된다. 본인은 비록 장수해 환갑을 넘겼지만, 윗사람들의 비극적인 생애를 지켜봤을 그녀가 관음보살상을 조성하며 경안군 부부의 장수를 빌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어서 노예성은 동료 나인으로 짐작되는 경자생(庚子生, 1600년) 박씨와 노씨의 장수를 빌고, 윤씨의 건강과 수명장수를 빌었다. 궁녀들이 이르게는 네다섯 살, 늦게는 열네댓 살에 입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예성과 이 궁녀들은 수십 년에 걸쳐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피붙이보다도 가까운 자매이자 동지들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상 안에 의류를 봉안하거나 의복에 발원문을 적는 풍습은 고려 시대부터 확인된다. 조선 중기의 왕실 여성 중에서는 광해군의 정비인 장렬 왕후(章烈王后, 1576~1623)가 불사에 여러 차례 의복을 시주한 바 있다.

그중 1622년(광해군 14)에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를 위해 발원했던 불상 안에 왕후 본인의 저고리를 시주했던 경우가 있다. 안동 선찰사(仙刹寺)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이 그것이다.

이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저고리의 안깃 안감에는 "병자생 왕비 류씨의 장수를 기원하는 옷(丙子生王妃柳氏命衣)"이란 묵서명이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조선 왕실에서는 수명장수를 빌며 그 사람의 저고리를 불복장에 공양하는 신앙을 행했음을 알 수 있다. 나인 노예성 역시 궁중 여성들의 불사 전통을 따라 저고리 주인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 남색 저고리를 시주했을 것이다.

관음조상발원문이 적힌 남색 명주 저고리는 입지 않은 새 옷이다. 아마도 노예성이 경안군이나 그의 부인 허씨를 위해 새로 저고리를 지은 후 불상 안에 공양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고리 뒷길 안쪽의 발원문과 더불어 저고리의 좌우 앞길 안쪽에 붉은색으로 찍은 보협인다라니(寶篋印陀羅尼)가 눈길을 끈다. 〈보협인다라니경〉에서는 불탑이나 불상 안에 보협인다라니를 봉안하면 일체의 여래가 그곳을 가지하고 수호해 줄 것이라 약속한다. 1662년에 관음보살좌상의 복장을 준비했던 이들은 〈보협인다라니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다라니의 힘으로 저고리의 주인이 무탈하기를 바라며 저고리 가장 안쪽에 다라니를 찍었을 것이다.

이 외에 흰색의 비단에 별도로 적은 발원문에도 노예성과 동참 발원자들의 이름이 재차 적혀 있다. 여기에는 송광사의 취미수초(翠微守初, 1590~1668) 스님을 비롯해 불사에 참여한 여러 스님의 소임과 이름도 기록돼 있다. 복장물 중 초록색 배자에도 분홍 안감 위에 시주자 류씨의 무병장수를 비는 발원문이 쓰여 있다. 이 배자의 안쪽에도 붉은색으로 다라니를 찍어 넣어 옷의 주인을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의미를 더했다.

## 복장이 전하는 이야기

많게는 500~600명에 이르렀다는 조선 시대 궁녀들의 삶, 그녀들의 마음을 전하는 기록은 매우 드물다. 궁중 안의 일이 바깥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했던 정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물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어느 궁녀의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 보인다. 비록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불사였으나 그 공덕은 우리 곁에 모습을 나툰 관음보살좌상으로 남아 모든 중생을 위무해 준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 내 자불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질문자1(남)** 저는 요즘 현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도 엉망이고요. 이번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도 없이 나왔습니다.

**큰스님** 나랏일이 걱정되십니까? 올해 특별히 그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근본이 일체 만물만생과도 가설이 돼 있고 일체제불하고도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몸이 움죽거리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이 없이 하라 이런 소립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면 남한테 유난히 저주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든 것은 이 우주 대천세계에뿐만 아니라 지구 하나도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하신다면 우주의 주인이 되고 또 주인이 이끌고 결정을 해서 지구의 심부름꾼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시면서 느끼는 대로 깊이 안으로 하십시오. 잘못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는가 그걸 알아야 하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 국민이 편안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 과거로부터 말입니다. 어저께도 과거니까 과거로부터 해 나온 걸 보면 현재에 그 도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돌아갈 건가 한번 생각해서 마음을 깊은 속에서 내십시오. 그럼으로써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 생활을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2(남)** 스님, 안녕하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이거든요. 셋째 주 법회를 들으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셋째 주 법회 들으려고 올라오려고 생각



그림 · 최주현

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참,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3 법회를 했는데 거기서 혜룡 스님께서 '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나를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순간순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시험도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과로 생각이 되고, 그냥 편안한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제 마음에 대해서 스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편하게 치를 수 있게 그렇게 마음 내 주기를 바라고 여기 섰습니다. 마음 내 주십시오.

**큰스님** 마음을 제 삼자에게 내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다 통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즉 말하자면 남한테 마음을 내 달라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더불어 같이 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내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것저것 다 버리고 편안하게 하겠습니까만,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고정됨이 없이 바로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단 말입니다.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안 했고 이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 자불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합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어. 합격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 못 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자꾸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내가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책을 찾아봐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모두를 볼 때엔 모두 자기 할 탓이죠,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요. 모든 게 자기 할 탓이다, 자기가 하는 대로 삶도 악도 선도 다 살고 있다, 자기가 할 탓이다 이거죠. 자기가 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네들이 한 탓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좀 벗어나서 살아라' 하고 일러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닭이 왜 사람으로 부화를 못 하느냐. 닭으로 살던 습이 머리에 쟁여져서 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닭의 습성이 있어서요.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살던 습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 습성을 다 거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올라와서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하느냐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생각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한생각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한생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거예요. 법이 되면 한 발짝 떼 놓지 않고도 가만히 그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떼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본래 한 발짝 떼어 놓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발짝도 떼어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별나게 사는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내가 항상 말하죠. 여기 올라올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고요.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그 발자국 떼어 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국을 떼어 놨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안 했습니까? 떼어 놓은 대로 없어지는 것을요.

찰나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이전에 미래도, 바로 미래와 과거 교차로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먹어도 한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내 몸속에도 생명들이 많으니까 한 개체를 더불어 한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일이고 진리를 파악해야 할 일이고 진리 속에서, 악과 선 그 가운데서 내가 악에는 어떡하고 선에는 어떡해야 하는지 그 도리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용법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공법'이라고 해도 되고 '용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실천을 항상 해 보십시오. 자기가 실천해야지 아무리 부처님이 있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고 끊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하라

☞ 19면에서 계속

일체제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 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보면 내가 차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나는 항상 묻는 대로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립니까?

**질문자2(남)** 고맙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대중 웃음) 부처님 앞에는 길고 짧은 것도 없고 어떤 거든지 다 맞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맞지 않는 게 어딨습니까?

**질문자3(남)** 저도 앞의 발표자하고 같은 수험생이거든요. 어저께 저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고3 법회를 했는데 거기서 법사 스님께서, 아까 발표자도 말했지만 "나를 버려라" 그 말씀을 스님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법사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래, 정말 나는 없는 거다.'라고 진짜 느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정말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법회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데요. 그래서 갑자기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지 못하고 나를 못 버리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까지 하는데요.

**큰스님**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질문자3(남)**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해서요. (대중 웃음)

**큰스님** 그런데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진다고요. 그랬죠? 그것이 가만히 편안하게 다 버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죠. 어떻게 들었어요? 연방 발이 고정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떼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불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불만 믿어라 이 소리거든요. 학생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되거든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불이 있겠나. 그러니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고 기름과 같거든. 그러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지?

또 딴 걸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거 봤나요? 본래 자불과 학생의 육신은 같이 집을 삼아서 있어. 저봐. 나무도 뿌리와 싹과 같이 달려 있지? 본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없이 믿어야 돼.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기의 참기사니까. 그러니 시험을 보더라도 이거는 자불 주인공 당신만이 이거, 이런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과목을 볼 때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거길 찍어서 놓는다든가 이런데도 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찍고 돌아가야 돼, 모르는 거는. (대중 웃음) 이 안에서 하게 만들어야 돼. 바깥에서 하면은 도저히 올팡갈팡이 돼서 잘못돼.

> 우리가 이런 공부를한다고 해서
> 닥칠 게 안 닥치는 게 아니라
> 닥치는 거를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 누가 방콕으로 처음에 갔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도 안 된다 그러기에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가서 아마 절정에 도달했던 모양이야. 자기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절하게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말의 뜻을 바깥으로 자꾸 마음에 내 주니까 그 뜻대로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방콕에서 말을 얼른얼른 배웠다는 거지. 금방 배워서 거기 졸업을 하고 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놔두고도 그거 한마디 얘기 안 해 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 뭐, 돈이 드니 못 해, 재산이 없어지니 못 해, 글쎄.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이거를 그저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 줘야 정작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가지.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텐 연방 해 주고.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밥 먹는 테이블에도 벽에도 붙여 놓고 변소 안에도 붙여 놓고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 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엄마더러 그러더래요. "나는 처음에는 '어디 정말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 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디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랬다는 셈으로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고 벽에 붙여 놓고 한번 해 본다면 그건 진저리 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마음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 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공부는 절의 스님네들만 하고 있는데 전자에 부처님 당시에도 이 공부를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도 배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써 하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걱정이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한 생을 사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얻을 수 있는 도리예요. 지금 교차로인 중세계에 한 철 살다가 우린 몸을 벗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왜 사람이 살다가 고에서 허덕거리면서 또 늙고 죽어야 하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 도리로 나섰는데 이미 그건 과거로부터 나서게끔 다 해 놨어요. 그렇게 돼서 여러 분한테 가르치려니까 또 그 길을 걸어야 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써 번연히 아는 것도 그냥 그 길을 되걸었다 이 소리죠.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그대로 있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군사도 될 수 있고 컵 속의 물이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컵이 온갖 천차만별로 화해서 쓸모있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 또 보현행이에요. 부처님은 그 능력을 배출할 뿐이지요. 그리고 법신은 법신대로 행을 하는 대로 내물리는 거죠. 물려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은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신이란 얘기죠. 화신으로서 보현신으로서 응신이 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위축돼서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건 도저히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데 이 속의 생명들의 의식들도 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다 하면은 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고 또 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다면 바로 일체제불에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통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면을 다 버리면서 흡수하고 흡수하면서 버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자불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여여한 줄 알았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아무리 끝없이 해도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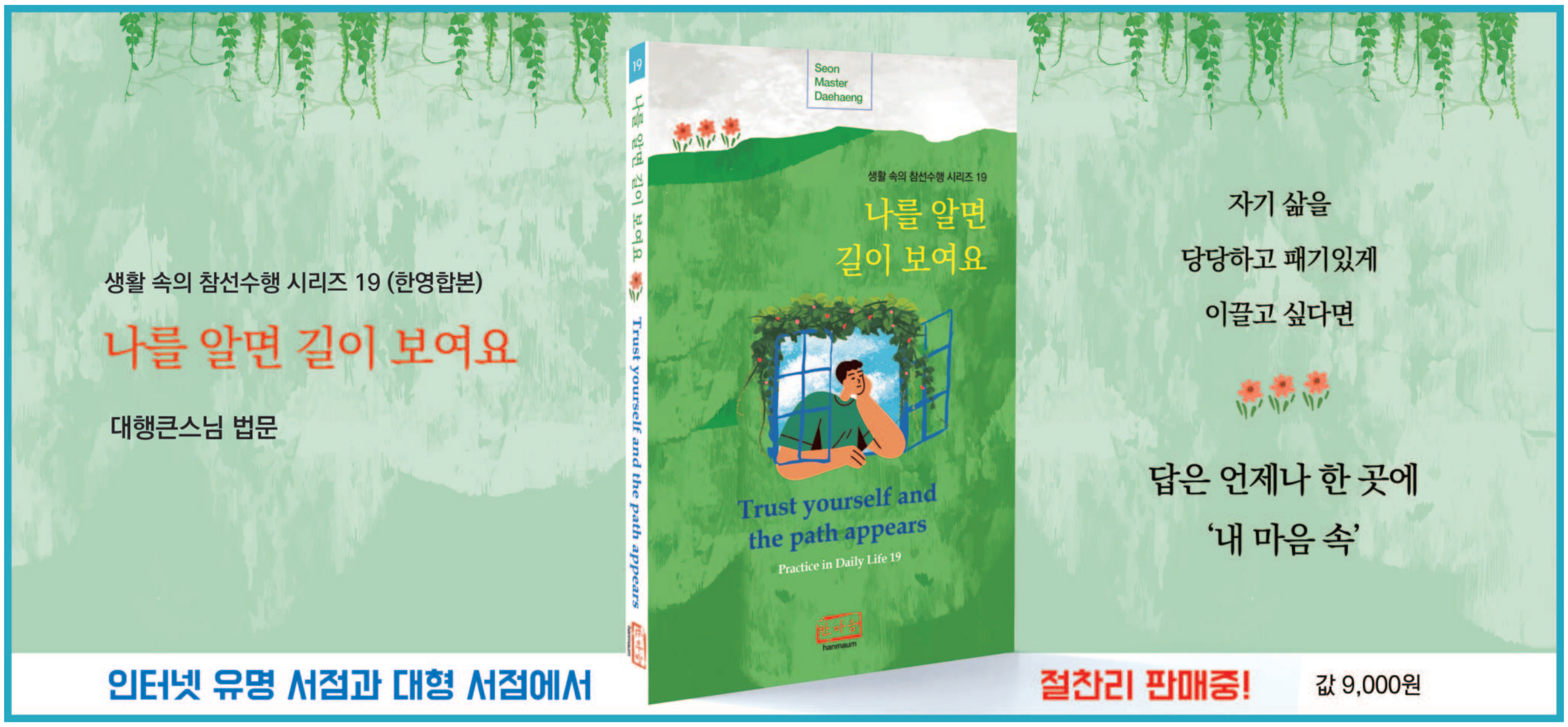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볼 때 여자 남자로 모습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나온 거지 누구가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가 하고, 어떤 남자들은 아이구,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서 들볶이고 이런다고 하죠. 그 모두 피장파장이에요. 피장파장인데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슴이 넓어야 한다, 마음이 넓어야 가슴도 넓어지고 한 가정을 안아서 전 세계를 안아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자보다 더 작은 남자가 있고 또 남자보다 더 큰 여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더 작은 여자도 많고 이러니 이건 중구난방이에요.

하여튼 이 한 철 살기에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가 딱 떨어져서 깨졌다 하더라도 "아이구, 이걸 깨뜨려서 어떡하우." 한다면 "그거 뭐, 이 세상에 몸도 깨지고 죽고 하는데 뭐 걱정이야,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살면 아예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부 한다고 그래서 닥칠 게 안 닥치는 게 아닙니다. 닥치는 거를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저녁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오?" 이러고 할 때 "산 입에 거미줄 칠까. 다 살게 되겠지, 먹게 되겠지." 하고 부지런히 나가서 찾아보면 그날 굶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거기에 신경을 좀 안 쓰지만 그때에 이 절이 저 안쪽 요사채만 있고 아주 가난했을 때죠. 그런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의 자손이 뭘 훔치러 왔어요. 그래서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쌀 한 가마 반인가 있는 거를 다 몽땅 줬어요, 식구가 여럿이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주고선 사시 마지 때 사시 공양을 올릴 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올리기 전에 말이에요, 쌀 세 가마니가 들어옵디다. 그게 내가 한 겁니까? 부처님이 계시면 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안 될 거고, 만사가 태평하죠, 뭐.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하하하. '내 자불이 있으면 될 거고 없으면 안 되고 그럴 거니까 너만이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맡기고 하세요, 뭐든지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7년 11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㊾ 육군비구를 제재한 부처님, 학교폭력(5)

# 침묵의 방관자, 학교폭력의 또 다른 이름

학교폭력의 장면에서 가장 많지만 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바로 방관자다. 직접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가해와 분리하지만 침묵은 폭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된다. 단톡방의 조롱, 복도 끝의 밀침, 교실 안의 은근한 따돌림 옆에는 늘 '보고도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1964년 3월, 뉴욕 퀸스의 한 골목길에서 28세 여성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가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 언론은 "38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죽음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 사건은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몇몇 이웃은 "그만두라"고 외쳤고 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늦게 도착했고 범인은 다시 돌아와 그녀를 공격했다. "아무도 돕지 않았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이후 미국 심리학자 존 달리(John Darley)와 빕 라타네(Bibb Latané)는 사람이 왜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하지 않는가를 실험으로 밝혀냈다. 실험에서 혼자 있을 때는 85%가 즉시 도움을 청했지만, 여러 명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믿을 때는 31%만 움직였다. 사람이 많을수록 행동은 줄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분산이다.

"누군가 나서겠지", "선생님이 알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의 행동 본능을 마비시킨다. 군중이 늘어날수록 도울 확률은 낮아진다. 그 결과 '다수가 지켜보는 교실'일수록 폭력은 더 오래, 더 깊게 지속된다.

학교폭력의 현장은 이 실험의 축소판이다. 가해자는 소수지만 방관자는 다수다.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따돌림당하면 어쩌지?", "다른 애들도 웃는데 굳이 내가 말릴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침묵을 정당화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이라고 부른다. 집단에 속할 때 개인의 책임감이 약해지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윤리의식마저 분산시킨다. 익명성과 무기력, 그리고 '평범한 순응'이 폭력을 지속시키는 구조다. 결국 가해자의 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수의 침묵이다.

그렇다면 방관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자각, 책임, 연결, 공감". 이 네 가지가 인간을 '행동하는 존재'로 만든다.

첫째, 자각이다. 지금 눈앞의 일이 누군가의 고통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장난'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는 감수성이 바로 시작점이다.

둘째, 책임감이다. "누군가 하겠지" 대신 "내가 해야 한다"로 바꾸는 인식이다. 무작위로 '리더 역할'을 맡긴 실험에서 그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자주 개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역할 인식'이 책임을 불러온 것이다.

셋째, 연결감이다.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이런 정체성이 있을 때 타인의 고통을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렵다.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의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이 된다.

**다수 지켜보는 교실, '침묵'이 폭력 키워**

**자각 · 책임 · 연결 · 공감이 행동 촉발**

넷째, 공감이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낀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고통 장면을 볼 때 자신의 신체 통증과 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즉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일이다.

특히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아이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과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첫째, 잘못된 다수의 인식을 바로잡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괴롭힘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보여 주면 침묵은 '규범'이 아니라 '오해'가 된다.

둘째, 신호를 만들어야 한다. 피해, 방관, 그리고 가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역할 선언문, 익명 제보함, '멈춤 카드'와 같은 구체적 실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보호 체계가 현실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신고한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정의감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적들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1968년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침묵을 깰 시간(A Time to Break Silence)'이라는 설교를 통해 이 한 문장을 남겼다. 그는 베트남 전쟁의 부당함과 인종차별의 현실 앞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야말로 진짜 비극이라고 말했다.

"자비 없는 권력, 도덕 없는 힘, 시야 없는 강함"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악인의 외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방관이라는 것이다. 이 구절은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실과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학교폭력 앞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한 마디를 삼킨 아이들, 불편한 장면을 보고도 "괜히 끼어들면 나까지 피해 볼 것 같다"며 눈을 돌린 어른들. 이들의 침묵은 악의의 확장을 돕는 '무위의 업(無爲業)'이 된다. 불교의 언어로 말하면, 말하지 않음도 하나의 행위요, 그 결과를 낳는 업(業)이다. 행동하지 않는 선의(善意)는 자비가 아니다. 의로움이 마음속에만 머무를 때, 그것은 결국 고통을 방조하는 무심의 형태로 변한다. 자비란 단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손을 내미는 '움직임' 그 자체다. 눈을 돌려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폭력의 한 부분이 되고 침묵하는 동안 악은 자라난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정의감이 아니라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용기, 그리고 그 말에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작은 행동이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고통의 연쇄를 끊고 자비의 방향으로 세상을 돌려 세운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㊿ 자궁경부암

# 예방 접종·선별검사 권장

자궁경부암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었으나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 백신의 도입으로 발생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종의 2.4%(3174명, 2022년 중앙암 등록 통계)를 차지하며 11번째로 흔한 암이다. 15~34세의 젊은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에 이어 네 번째로 흔한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지속 감염이 암의 발생과 강력하게 연관돼 있고 대부분은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이라는 전암 단계가 존재하며 이 전암 단계가 7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오랫동안 지속된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는 전암 단계에서 진단 또는 암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해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는 자궁 경부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세포 검사와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가 있다.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는 국가암검진에 포함돼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 대상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성 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이다. 선별검사 주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발생 빈도, 선별검사 접근성의 용이함, 저렴한 검사 수가를 고려할 때 1년 간격으로 세포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선별검사 시기는 생리가 끝나고 적어도 5일 이상 지나서(또는 생리 시작일로부터 10일~20일 사이) 검사받는 것이 좋고, 검사 전 2~3일 동안에는 성교, 질 세척, 탐폰, 질정 사용을 피한다.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25세 이상의 여성에서 세포 검사를 대체하는 선별검사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선별검사 간격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다.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세포 검사에 비해 높은 자궁경부상피내종양 검출 민감도를 가지며, 더 많은 고등급 자궁경부상피내종양 환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자궁경부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흔한 증상은 성교 후 경미한 질 출혈이다. 이러한 질 출혈은 처음에는 피가 묻어 나오는 정도이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출혈 및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악취가 동반된다. 암이 진행해 주변 장기인 직장이나 방광, 요관, 골반 벽, 좌골 신경 등을 침범하게 되면 배뇨 곤란과 혈뇨, 직장 출혈, 허리통증, 하지의 동통 및 부종,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젊은 여성에 네 번째로 흔한 암**

**조기 발견 · 치료 시 완치 가능해**

**백신 종류 따라 예방 효과 상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면 수술하기 전 임상적으로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나타내는 병기를 결정하기 위한 몇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자궁경부암 병기는 1기에서 4기까지 분류돼 있고 각 병기에 따른 치료 원칙이 정해져 있다. 1기에서 2기 초에는 수술이나 동시화학방사선요법이 모두 가능하고, 2기 말보다 더 진행된 암에 대해서는 동시화학방사선요법이 시행된다.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치율이 크게 감소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첫 성교 연령을 늦추고 성교 대상자 수를 제한해야 하며 콘돔을 사용하고 성 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은 1년 간격으로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경부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2가(서바릭스), 4가(가다실), 9가(가다실9)의 세 종류가 있으며, 각 백신은 표적으로 삼는 바이러스의 수가 다르다. 이들은 자궁경부암의 약 70%와 다른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종양(외음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음경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16, 18형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4가 백신은 생식기 사마귀의 원인이 되는 6, 11형 감염을 추가로 예방할 수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된 9가 백신은 이 네 가지 유형과 함께 추가로 다섯 가지 유형의 인유두종바이러스(31, 33, 45, 52, 58형)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궁경부암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HPV 백신은 성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9~45세(2가 백신은 55세까지) 여성에게 접종이 권고되며, 성 경험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이상적인 접종 연령은 9~26세이며, 27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 있기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연령과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간격이 다르다. 백신을 접종해도 암이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규칙적으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채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 법음(法音), 가을 하늘에 울리다

지난 10월 25일 토요일 나는 영주 부석사로 향했다. 의상 대사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큰 법석에 초대받은 것이다.

부석사 야외무대 위 먼 산의 능선을 병풍 삼아 의상 대사의 괘불이 모셔지고 그 앞에 법음(法音)이 울려 퍼졌다. 찬란한 햇살과 가을 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세속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파동이었다. 붓다볼(Buddha Bowl)의 맑은 울림이 부석사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 때, 나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깊은 환희심에 잠겼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순간 함께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가피였다. 행사를 준비하며 겪은 작은 불편함이나 피로는 그저 미소로 녹아내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다.

가을빛 속에서 울려 퍼지는 붓다볼의 소리는 이미 완전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퍼져 나가 부석사의 돌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들의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다. 붓다볼은 깨달음의 종소리였다. 그날의 울림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수행의 진동이었다. 한 분, 한 분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합장한 손끝에 신심(信心)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소리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법(法)이라는 것을. 함께 연주한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명상지도사 선생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붓다볼을 울리며 법회의 의미를 깊이 새겼다. 각자의 볼이 내는 소리는 다르지만 울림의 목적은 하나, 부처님의 법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다.

연주를 마친 뒤 서로의 눈빛에는 감사와 감동이 번져 있었고, 그 마음이 부석사의 가을 하늘을 더욱 빛나게 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의 가슴에도 깊은 기쁨과 원력이 일었다.

파란 하늘 아래 법음이 산자락을 따라 퍼져 나가며 대지 전체가 진동하는 듯했다. 나는 그 진동 속에서 '이것이 바로 전법이구나'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말로 전하는 법보다 소리와 울림으로 전하는 법이 더 멀리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붓다볼의 여운이 내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귀로 듣는 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신 연민과 자비의 파동이었다. 이미 세운 원력, 그 길 위에 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붓다볼과 함께 법을 전하는 이 길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울림은 나와 함께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법음은 사람의 말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 소리의 진동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고통을 녹이고 희망을 피워 낸다. 의상 대사의 탄신 1400주년이라는 위대한 법석에서, 나는 그 울림을 다시 새기며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의 파동을 전하고 있다.

붓다볼의 울림은 멈추지 않는다. 그 소리가 머무는 곳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피어나고, 그 진동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부드럽게 깨어난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나는 그 울림과 함께 오늘도 전법의 길을 걷는다.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㉑ 단제 선사 황벽

# 선이 아니라 선사가 없을 뿐

바이오테크닉은 색법 위주로 흐르는 것이라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옛 선사들의 기연(機緣)을 곰곰이 읽다 보면 색법과 심법이 둘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오늘 우리 뺨에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이 남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반대편 뺨도 돌려 대는 아량이 생길 것이다. 우리 눈의 허물이 벗겨지면 실상의 진면목 앞에 거짓은 사라지고 올바른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기에 일척안(一隻眼)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기묘한 신기술에 현혹돼 헛된 꿈을 꾸면서!

〈벽암록〉 11칙에 의하면, 황벽은 부처와 조사의 커다란 기용을 모두 손안에 넣은 선사다. 그는 우주의 온갖 생명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또한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로 천하의 사람들을 움직인다. 황벽의 일거일동은 족쇄와 형틀을 부수었다.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는 선사의 풍모를 보인 것이다. 황벽을 따라 배우다 보면 어느덧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또 말하는 것마다 진리를 제창하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한때 황벽은 '추행사문(麤行沙門)'으로 불렸는데 그 내력은 이러하다. 당 헌종(憲宗)의 둘째 아들은 젊은 시절 풍찬노숙의 삶을 살았다.

그는 조카인 무종(武宗)의 핍박을 받다가 절집으로 몸을 피해 지내게 됐으며, 그 시절 절집에서 그의 이름은 대중(大中)이었다.

대중 사미는 향엄지한(香嚴志閑)의 문하에서 삭발을 한 후, 이리저리 행각을 하다가 염관(鹽官)의 회상에 머무를 때 황벽을 만났다. 황벽의 염불은 심금을 울리는 깊이가 있었다. 그러나 직지인심의 견처를 밝히는 선사에게 염불은 어딘지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사미였던 대중은 이를 두고 황벽에게 시비를 걸었다.

"부처에게도, 법에도, 승가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불은 해서 무엇 하시려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황벽은 대중의 뺨을 갈겨 버렸다. 대중이 이를 두고 거친 사람이라고 투덜거리자 황벽은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뺨을 때렸다.

**대중 사미 뺨 갈긴 추행사문**

**족쇄와 형틀 부순 일거일동**

**오늘날 우리 일깨우며 단제해**

대중 사미는 훗날 선종(宣宗) 황제로 즉위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선종의 부름에 황벽은 궁궐로 입참했다. 선종은 옛 기억을 되살리며 황벽에게 성질 괴팍한 추행사문이라 이름을 내린다.

그때 상공으로 있던 배휴가 황벽으로부터 뺨을 맞은 일로 인해 전생의 악업이 끊어진 공덕이 있었기에, 현재 제위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황벽을 단제(斷際) 선사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상주한 것이다.

황벽은 추행사문에서 단제 선사로 격이 상승한다. 〈무문관〉 2칙[百丈野狐]을 보면 황벽은 백장 선사의 뺨을 때리기도 했으며, 임제 선사조차 황벽의 거친 솜씨에 세 차례 얻어맞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황벽은 '붉은 수염의 달마[赤鬚胡]'라 칭찬을 받기도 했으며, 세상을 보는 '바른 안목[一隻眼]'을 지닌 사나이로 상찬됐다. 황벽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일깨우며 단제하고 있다.

황벽은 지금도 우리 귓가에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을 뿐(不道無禪 只是無師)이라고! 너희들은 모두 술지게미나 먹고 취해서 돌아다니는 놈들(汝等諸人 盡是噇酒糟漢)이라고! 황벽의 저 목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져야 한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 이태원 참사 3년, 고통 지속되지 않으려면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어느덧 3년이다.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여전히 그날의 공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얼어붙은 채 남아 있다.

시민 159명이 숨지고 320명이 다친 그 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과거형이 되지 않는다. 참사 현장은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사회적 참회와 연대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군가는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누군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추모한다. 참사 직후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 불교계는 그 기억을 '기도'로 위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웃종교 단체들과 함께 매년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를 열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현장 인근에서 천도재를 꾸준히 봉행하고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삼보일배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3년을 맞은 지금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유족 치유도, 재발방지책도 아직 미완이다.

참사와 마주하기를 꺼렸던 윤석열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국가 차원의 노력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제 기능을 하지 않던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올 6월에야 첫 진상 조사에 나섰다. 특조위에는 없는 수사권을 가진 검경 합동 수사팀은 7월에야 만들어졌다. 징계 시효 3년이 끝나기 전 감사해 달라는 유족의 간곡한 요청이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유족과 생존자, 그리고 구조대원이 겪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재하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이태원 4주기에는 같은 고통, 같은 울분이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두계더 本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 물들어 가는 이 시절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어느덧 낯선 쌀쌀함에 익숙해지며 다시금 가을의 정취가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요즘이다. 늦은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여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푸르고 높은 하늘은 가을의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쌀쌀한 바람과 함께 겨울이 찾아온다고 느끼지만, 익숙해질 만하면 쌀쌀맞게 우리 곁을 다시금 훌쩍 떠나가 버린다. 그렇기에 가을의 정취는 더욱 소중하고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듯하다.

가을의 모습은 우리의 올해와도 같다. 새해를 맞아 저마다의 기대와 서원을 세웠지만, 어느새 올해가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시간의 무상함과 놀라움이 있기에 올 가을도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

항상(恒常)한 것이라면 그 항상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무상(無常)한 것이기에 이 순간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간절함에 의해 더욱 담아 두고 싶어진다. 〈중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과거를 좇지 말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로지 현재 일어난 것들을 관찰하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을 추구하며 실천하라."

모든 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사라짐이 있기에 생겨남이 따라오고, 생겨났기에 다시 사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져**
**무상·무아 가르침 도처에 존재**
**오늘을 서원·실천으로 물들이자**

라지는 것이다. 불교의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모든 것과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 채 사라짐이 아쉬워 붙잡으려 하거나 다시 생겨남이 두려워 피하려 한다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 오늘을 불안하고 괴롭게 만들 것이다.

이 가을은 지나갈 것이고 올해도 더불어 지나갈 것이다. 아쉬움을 갖기 전 오늘의 지금을 살펴봐야 한다. 놓친 것은 없는지, 잊고 있던 건 없는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고 확인해 지금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간절하게 보내야 한다. 과거를 좇는 것은 놓치고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아무리 좇는다고 해도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

그리고 오지 않은 2026년을 생각하며 목표나 생각만을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 오지 않은 미래는 허망한 채로 눈앞에 아른거리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허망함을 줄 뿐이다. 그러나 미련한 과거도 허망한 미래도 모두 오늘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어떠한 미련과 허망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한 걸음씩만 걸어 나간다면, 그 걸음걸음이 쌓여 어느새 '그것에, 그곳에' 다가가 있을 것이다.

지나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지금의 추억으로 쌓고,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듯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오늘을 우리의 하루로 온전히 물들이자. 물들이기에 오늘의 색이 변할 것이고 물들였기에 점차 그 색이 빠질 것이다. 원하는 색으로 물들이는 실천이 있기에 오늘의 이 색이 내일의 그 색으로 변할 것이고, 어제의 그 색은 오늘의 이 색과 다를 것이다. 물들어 가는 이 가을, 우리의 오늘을 서원과 실천으로 물들여 자신의 계절로 한 걸음 다가가자.

# AI, 기술과 지혜 사이 줄타기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기계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반신반의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갸우뚱하는 사람보다는 가능할 거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자율주행부터 노동자 없이 로봇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외로운 노인들에게 말벗이 돼 주는 휴머노이드를 가능케 해 주는 현재 인공지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범용 AI(AGI)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AGI는 인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다. 이 AGI는 그동안 인간 능력 바깥에 있던 난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12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2030년까지 인력이 거의 필요 없는 창고를 만들기 위해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할 것이며 최대 60만 개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도가 뉴욕타임스를 통해 나왔다. 결국 인공지능이 펼쳐 보일 세상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소외시키고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알고리즘으로 더욱 편협한 정보를 받으며 양분된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있다.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중세 봉건주의가 재림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환경 문제다. AI의 능력은

**AGI로 인간 노동서 소외될 것**
**데이터 전력 소비 환경 문제도**
**위기의 파고 넘을 지혜 절실해**

수많은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학습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터와 어마어마한 용량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작동시키기 위해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떠받쳐 줘야 한다.

날로 거대해지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업계 최초로 2025년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Gemini)의 질문 처리 소비 에너지 사용량·탄소 배출량·물 소비량을 포함한 환경 비용을 공개했다. 다만 건당 소비되는 수치만 공개했을 뿐,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총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은 이전 공개했던 추정치들보다 데이터 처리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에너지와 AI' 보고서에 따르면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인간의 폭발적인 상상력이 이만큼 문명을 이룩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원하기에 생각마저 기계가 해 주길 원하는 걸까? 우리는 어떤 문명을 창조하고 싶은 걸까? 이제 세계는 자유 무역의 시대가 끝나고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드는 듯하다.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추동할 여력이 없어진 틈바구니에서 등장한 인공지능 기술이 또다시 인류의 미래를 분홍빛으로 바꿔 주길 기대하는 걸까? 과연 인공지능이 열어 보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까?

기후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 상태인 티핑 포인트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을지도 모른다는 묵시록적인 전망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온 지 꽤 된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성장의 도그마를 찾기에 급급한 인류는 이제 기술과 지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문명사적 위기의 파고를 넘을 지혜가 아닐지.

社 說

## 사회 갈등 일으킬 '특혜' 안 된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다시 논란이다.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려에도 대회조직위원회가 10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몰이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대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구에서 열린다.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참석하며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총사업비는 2950억원으로 추산했다.

조직위는 대회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성찰하고 나누는 축제"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톨릭 교황청이 주관하는 종교 행사다. 대회의 핵심가치는 '복음에 바탕을 둔 인간 존엄성 성찰'이고 주요 행사는 개막 미사, 교황 환영 행사,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등이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종교 행사에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다. 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가톨릭은 오랜 전통과 사회적 신뢰를 가진 종교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공공의 영역까지 확장될 때는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조직위는 불교계의 우려를 '발목잡기'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창종 60돌 관음종에 거는 기대

관음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관음종은 10월 24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개산조 태허 흥선 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관음종의 시작은 태허 조사로부터 시작된다. 일제강점기부터 중국서 구법순례를 하며 수행 정진한 태허 조사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인 1957년 관음종의 모태가 되는 '일승불교현정회'를 창립했다. 이후 1958년부터 2년간 탑골공원에서 이뤄진 태허 조사의 거리설법은 관음종 창종과 전법의 기반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 관음종이 창종 기념행사를 탑골공원에서 봉행하는 이유도 이 같은 태허 조사의 거리설법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이번 60주년 기념 법회에서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종단이 나아갈 큰 방향을 대중에게 선언했다. 홍파 스님은 태허 조사의 혜안을 계승해 앞으로 펼쳐질 AI(인공지능)시대의 전법을 선도해야 함을 종도 대중에게 강조했으며, 법명 스님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AI시대에 발맞춘 전법·포교와 다문화국가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인권운동, 다문화 가정 대상 복지사업은 한국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전법 및 사회실천 분야의 화두다. 관음종이 태허 조사의 가르침을 이어 내며 펼칠 전법·사회실천행이 한국사회 발전에 일임을 담당하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법계 품서식 봉행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본 종단 종헌 및 승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일시 : 11월 10일 월요일 11시
▮장소 :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고시위원회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0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성사
• 주 지 : 법정 스님 (속명 : 송철수)
• 주 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488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대한불교용화미륵선불종 총무원장 법하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2025 영캠프
청춘(靑春), 연꽃을 피우다
일시 2025. 11. 18.(화) 오후 3시 - 6시
장소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문무관
Young Camp-Festival with Buddhism
영캠프는 대학생 청년불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동국대학교 돈관 이사장 스님께서 영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습니다.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새롭게 느끼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